

보 자 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보 자 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보 자 기 예술로 승화된 실용

인쇄 2007년 4월 13일

발행 2007년 4월 16일

전시기획 최경자 · 주혜련 · 임현주

책임진행 장경수 · 호원숙

전시진행 이광애 · 구복순 · 설영자 · 전경숙 · 손창옥 · 김혜정

유물정리 김귀란 · 정광숙 · 강영서 · 김현순 · 이숙명

논문번역 권영아

사진 서현강

도록디자인 · 제작 디자인이즈 2269 · 9566

발행인 이명희

주최 경운회

주관 경기여자고등학교

발행처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2번지 tel. 02) 3463 · 1336 fax. 02) 3463 · 1331

www.kwmuseum.org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값 30,000원

보자기 - 예술로 승화된 실용

경운박물관은 2003년 개관한 이래 기획전마다 박물관의 놀라운 표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특별한 전시로 한 해 한 해 발전된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보자기-예술로 승화된 실용>전에 붙여 머리말을 쓰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 문헌에 보면 보자기가 복(複,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한자어로 보(褙), 우리말로 보자기라고 부릅니다.

보자기가 발달한 이면에는 일종의 기복신앙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치성을 드린 대상은 초복(招福)의 매체가 된다고 믿었고 보자기에 물건을 싸두는 것이 복을 싸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자기가 발달한 것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자리를 적게 차지하여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가재도구로 바람직했기 때문입니다.

보자기는 개폐에 따라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워 보관 혹은 운반 용구로 적격이어서 우리 문화의 유목민적인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자기는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루 쓰였고 주로 서민층에서 만들었으며 옛 선조들의 신앙 세계관 인생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래되어 왔습니다.

조각보는 쓰다 남은 자투리를 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즉, 자원을 아끼고 활용하는 생활 속에서 번뜩이는 지혜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조각들을 이어간다는 연장 개념이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조각보 제작을 성하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작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창조하는 자체의 즐거움이 지배적인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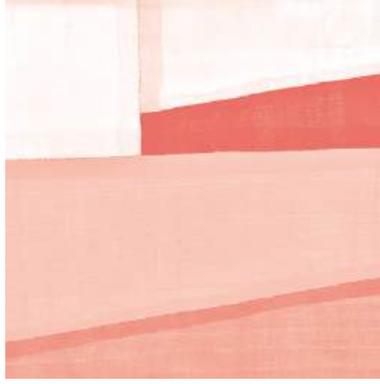
조각보를 모으는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써 노동과 유희, 예술이 하나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기교를 앞세우는 개인주의 성향이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풍토에서 나온 것이기에 표현이 자유롭고 신선합니다. 무엇보다도 색조의 활용이 독특하고도 은은하고 계획적이지 않으면서 여유와 자연미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름 모를 여인들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조각천들의 면과 색의 구성은 현대 추상회화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기하학적인 추상공간이 나타납니다. 조형의 언어와 색채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추상공간은 극단적인 기하추상에 도달한 몬드리안이나 클레를 연상시킵니다.

보자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면 분할과 색상 문양 등의 구성 기법이 현대의 조형 예술에 신선한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볍고도 유동성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과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 유산인 보자기 전시를 경운 박물관의 다섯 번째 기획전으로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허 동 화 | 한국자수박물관 관장





아름다운 구성미

선과 면의 킴포지션 모시·베 조각보

색과 면의 다양한 조화 색 조각보

조형의 자유로움 수보

반복과 변용 판보, 방장



아름다운 구성미

선과 면의 킴포지션 모시·베 조각보

1 삼베조각보 褌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58×55cm 흘, 삼베 20C

삼베 홀보로 만든 이 조각보는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조각을 홈질로 시침하고 굵은 실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감침질했다. 규칙성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구성하면서도 산만한 느낌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멋이 배어나는 조각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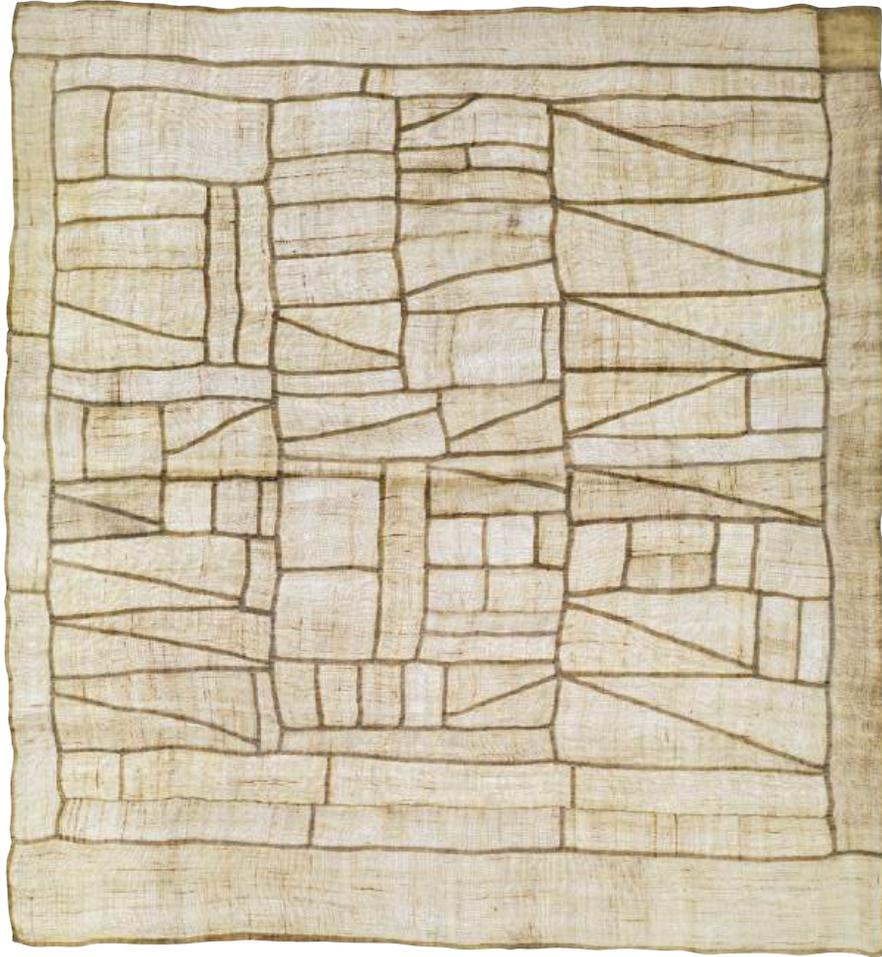
2 삼베조각보 褌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35×34cm 끈 62×3cm 홀, 삼베·모시·모시항라 20C



3 삼베 · 모시조각보 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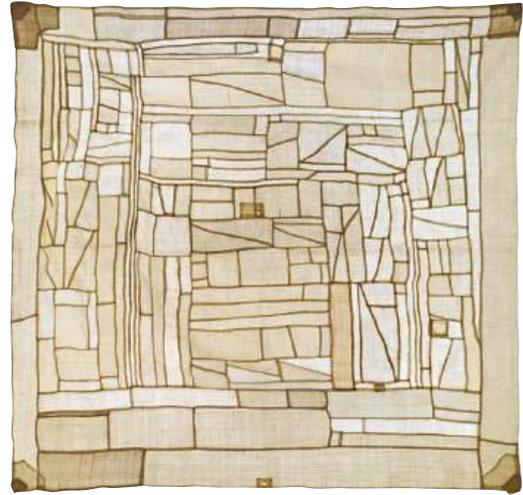
Patchwork Wrapping Cloth of Hemp and Ramie
89×63cm 홑, 삼베 · 모시 20C



4 삼베조각보 褌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87×82cm 홑, 삼베 20C

작은 세모와 네모 조각을 자유롭게 배열하여 구성한 삼베조각보이다.
선과 색의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



5 모시조각보 褌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86×86cm 끈 80×4cm 홀, 모시·삼베·무명 20C

소색 모시와 황색 삼베를 부분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홀보이다. 테두리는 넓은 천을 사용하여 네 번을 두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귀퉁이에 좁은 무명 끈을 달았다. 면 분할의 대조를 이용한 대담성이 뛰어나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조각보이다.

6 조각보 褌

Patchwork Wrapping Cloth
114.5×122cm 홀, 모시·삼베·명주·면아사 20C



7 모시조각보 褌

Ramie and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96×98cm 끈 79×5cm 흠, 생모시·삼베 20C

황색조의 천연 모시와 삼베를 조합하여 만든 홀보이다.
작은 조각을 안쪽에 배열하고 비교적 큰 조각은 바깥에 배열하여
비정형의 울퉁감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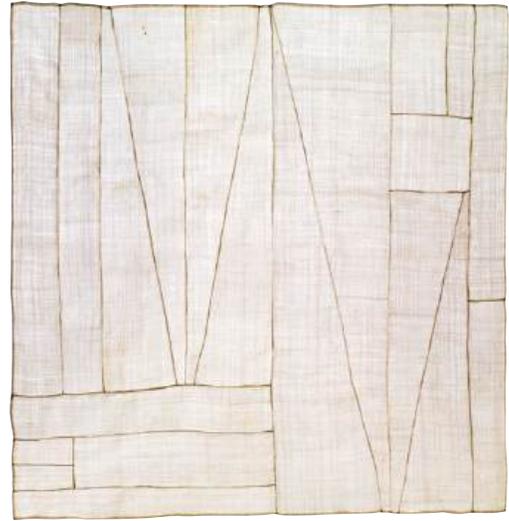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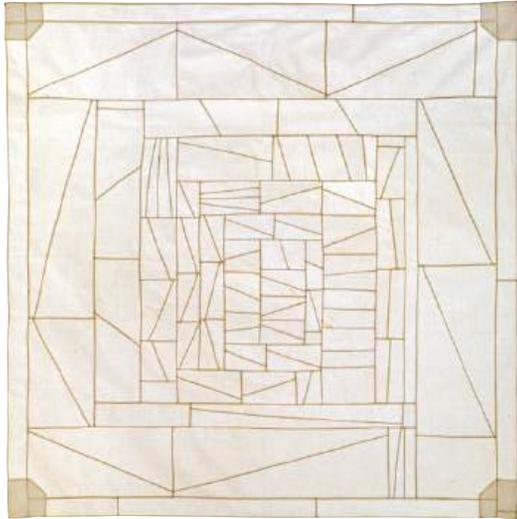


8 모시조각보 褌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96×97cm 끈 88×4.2cm 홀, 모시·항라·무명 20C

9 조각보 褌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82×82cm 끈 66×4cm 63×4cm 홀, 은조사·생명주·왜사·항라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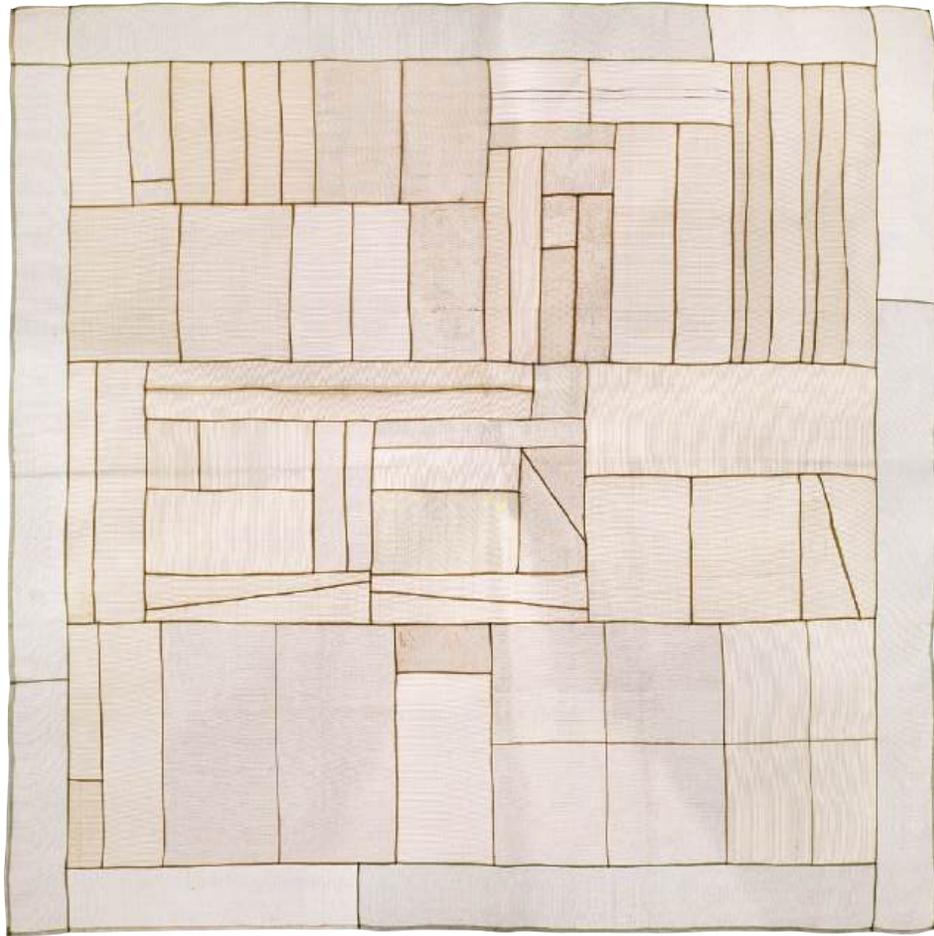


10 면조각보 褙

Cotton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11×111cm 홀, 옥양목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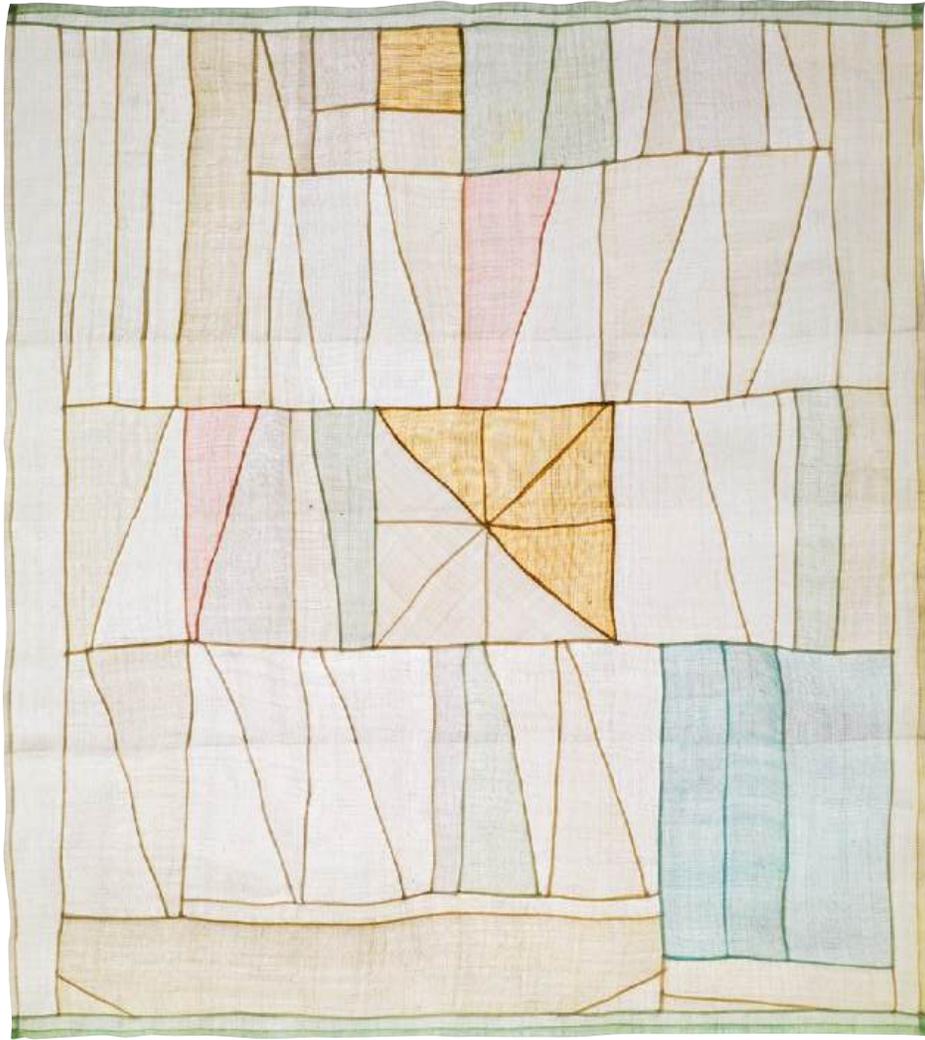
11 모시조각보 褙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04×108cm 홀, 모시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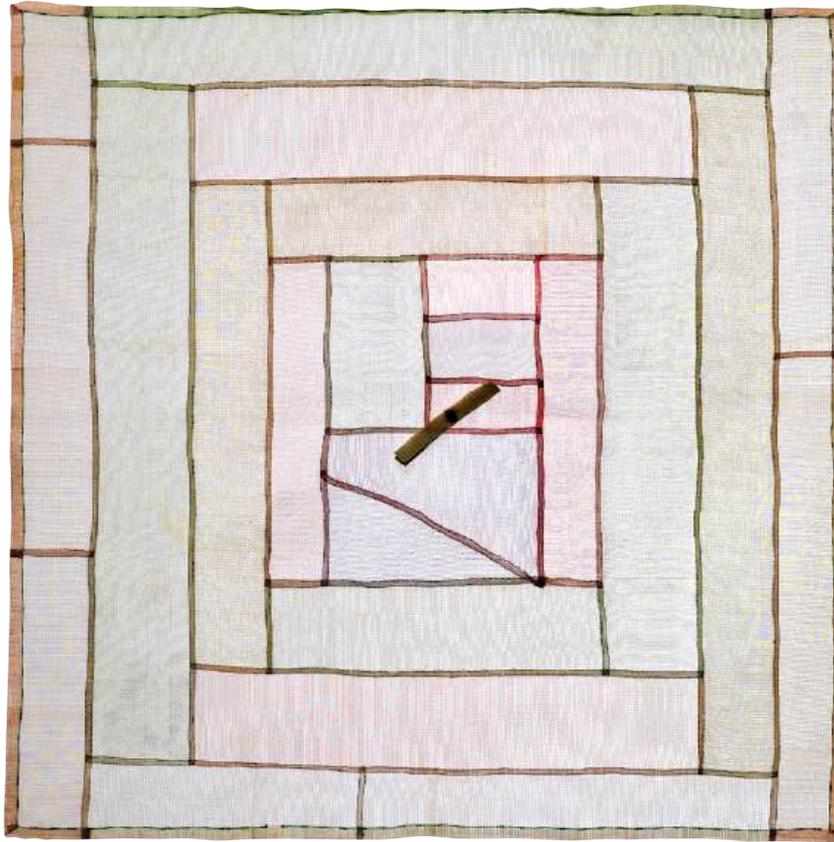
12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88×87cm 홀, 황라·진주사·노방주 20C



13 모시조각보 褌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64×64cm 홑, 모시 20C



14 향라조각보 裯

Silk Gauze Patchwork Cover

59×59cm 홑, 삼죽향라·오죽향라·칠죽향라 20C

연분홍색, 옥색, 비취색 등의 향라 조각을 이용해 만든 홀보이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확장되어가는 방형구성으로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가운데에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단 꼭지마저도 구성선과 자연스럽게 교차되도록

방향을 고려하여 박쥐단추로 마무리하였다.



15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75×75cm 겹, 향라·문향라 20C

분홍색, 살구색, 소색, 옥색 연한 빛깔의 향라 조각을 이어 만든 보자기로 테두리와 안쪽에 변화를 준 구성이 재미있다. 색깔과 숨씨에서 여성스러운 볼내음이 묻어난다.



16 삼베조각보 褌

Hemp Patchwork Wrapper
39×46cm 끈 62×3.2cm 홀, 삼베·옥양목 20C



17 모시조각보 褌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77×77cm 끈 28×5cm 홀, 모시 20C



18 삼베조각보 褙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84×88cm 끈 60×4cm 홑, 삼베·무명 20C

19 모시조각보 褙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80×80cm 홑, 모시 20C

모시조각보는 통풍이 잘 되므로 비교적 오래 보관하는 솜이나 옷감, 이불 등을 싸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이 먹색 조각보는 삼각형과 사각형 모시조각을 이어 선과 면의 세련된 구성을 보여준다. 네 귀퉁이는 바대를 대어 겹으로 처리한 후 색실로 추상적인 무늬를 넣고 네 변은 홍색실로 두담상침하였다.



20 삼베조각보 襟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61×159cm 홀, 삼베 20C

21 모시조각보 襟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56×156cm 끈 54×4.2cm 홀, 모시 20C





22 모시조각보 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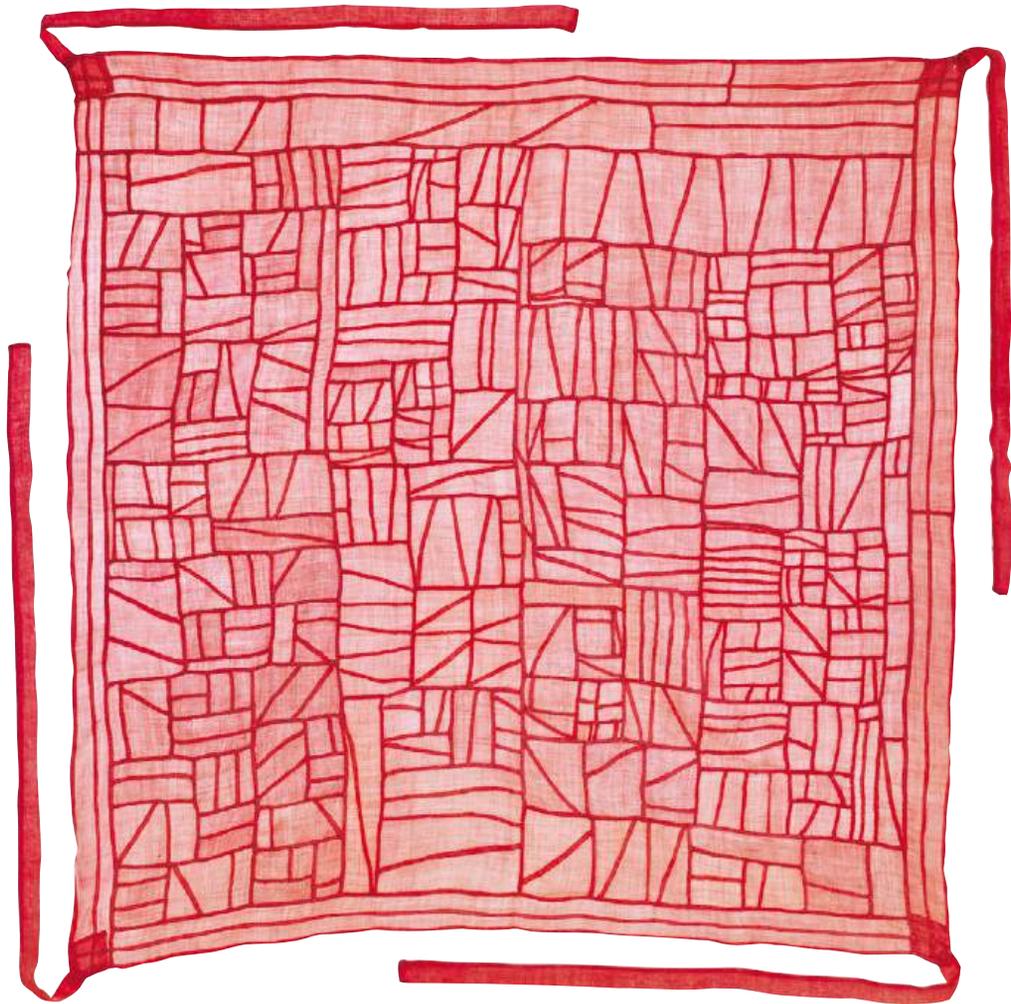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05×110cm 끈 74×3.3cm 홑, 모시 20C

23 모시조각보 褙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28×133cm 끈 100×3cm 홀, 모시 20C

작은 삼베 조각을 이은 후 홍화로 염색하였다.





24 모시조각보 褙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23×129cm 끈 85×3.2cm 홀, 모시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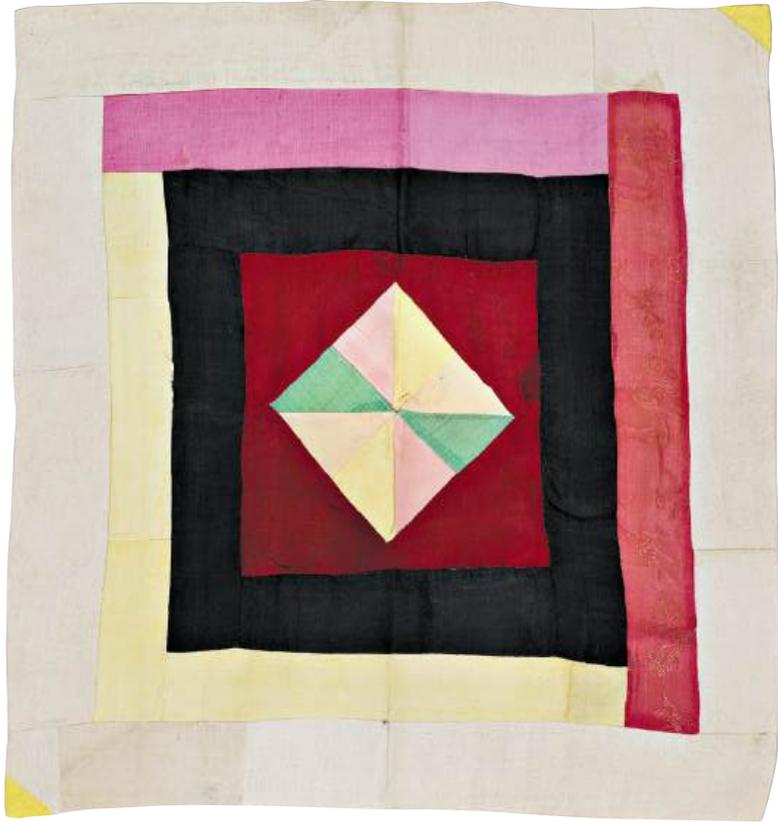


25 삼베조각보 褙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21×128cm 홀, 삼베 20C

삼베 조각을 이은 후 쪽물로 염색하였다.



아름다운 구성미

색과 면의 다양한 조화 **색 조각보**

26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7.5×64cm 겉, 무명·명주·문단·모시·문주 20C



27 조각보 褌

Patchwork Wrapping Cloth
74×74cm 곱, 명주 · 생명주 · 무명 20C



28 조각보 褌

Patchwork Wrapper
33.5×33.5cm 겹, 문주·모본단·소창 20C



29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8×68cm 겹, 문단 20C



30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36×36cm 겹, 명주·문주 20C

31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40.5×40.5cm 겹, 갑사·순인·생명주 20C

갑사와 순인 등 사(紗)종류의 작은 사각형 조각을 감침질로 이어 꿰매고,
뒷면은 소색 생명주를 댄 겹보자기이다. 가운데에 색실을 사용하여 꼭지를 만들어 달았다.



32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58×58cm 겹, 명주 20C

33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of Various Silk Gauze
67×67cm 겹, 갑사·진주사·은조사·항라·문항라 19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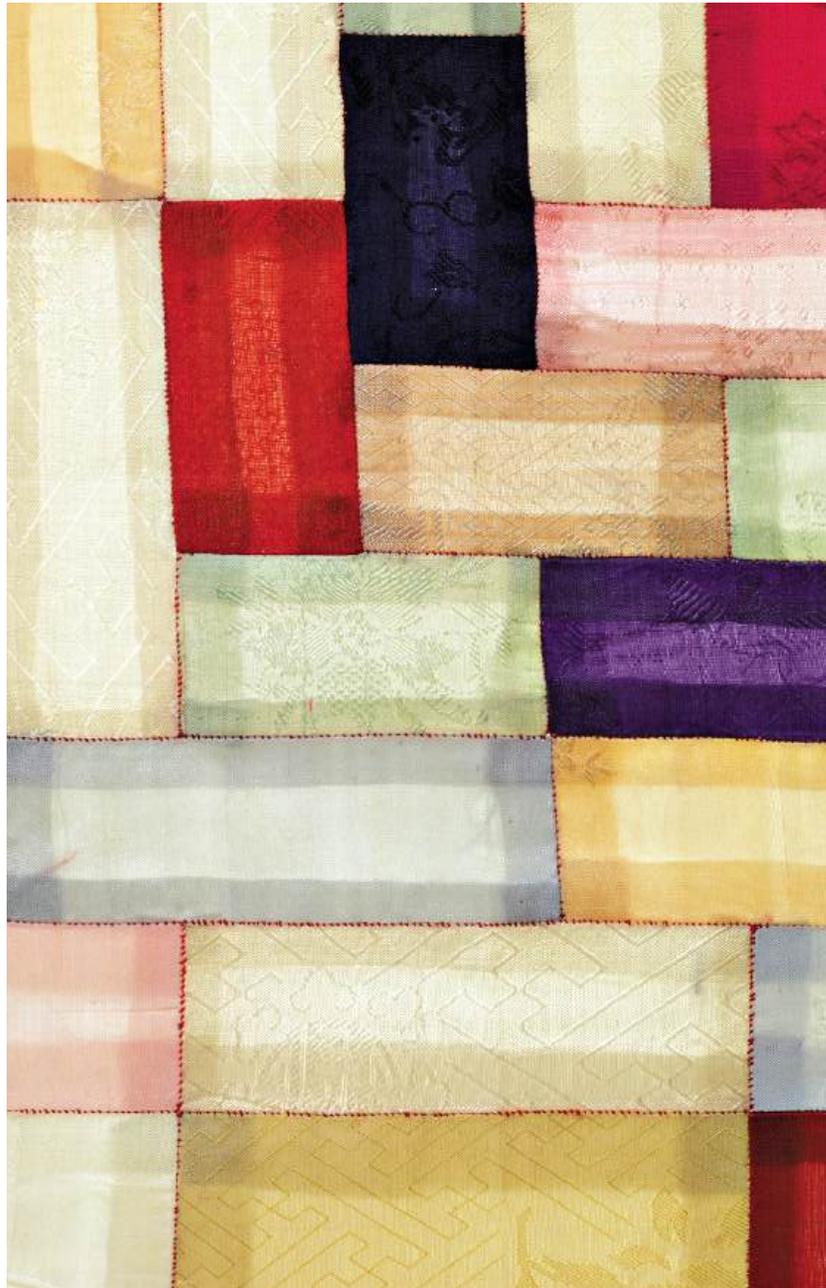






34 조각보 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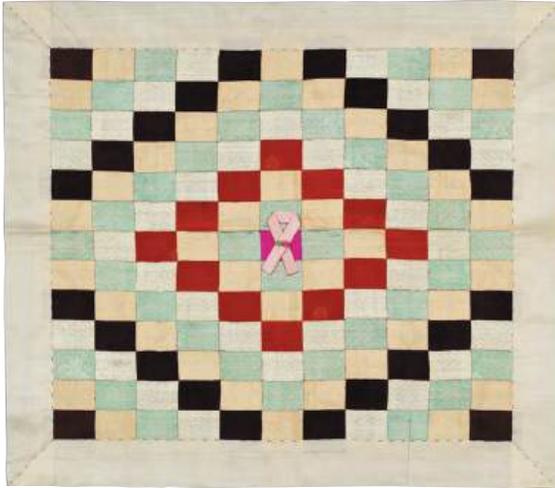
Patchwork Wrapping Cloth of Various Silk Gauze
75×75cm 겹, 갑사·진주사·은조사·항라·문항라 20C





35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0×60cm 겹, 자미사·명주·문주 20C



36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56.5×66cm 겹, 명주·문주·삼팔주 20C

명주와 무늬 있는 주(紬) 조각을 이어 대칭적인 색 배열을 이루었다. 뒷면은 소색 삼팔주를 대어 자색 실로 석땀상침하였다. 가운데는 분홍색 명주로 꼭지를 달고 그 위에 꽃분홍과 연두색 박쥐단추로 양중맞게 장식하였다.

37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56.5×56.5cm 겹, 숙고사·주 20C

다채로운 숙고사 조각을 작은 사각형으로 연결하고 긴 사각형을 사이사이에 붙여 문창살 모양으로 구성하였다. 가운데는 소재는 같지만 바탕과 대비되는 색의 꼭지를 달아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여 사용의 편리함을 강조하였다.



38 오색고전문상보 裯

Five-colored Table Cover with Geometric Window Frame Pattern
49×49cm 곱, 갑사·순인·항라·문단·생명주 20C

고전문은 여의주 무늬라고도 하며 불가(佛家)의 칠보문(七寶紋) 중 엽전 모양의 전보(錢寶)로 해석할 수 있다. 칠보무늬는 자손 대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며 재액이나 질병을 물리쳐 줄 것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속해서 엮어놓은 전보무늬는 재물의 복을 상징한다.



39 조각보 褌

Patchwork Cover
82×82cm 겹, 명주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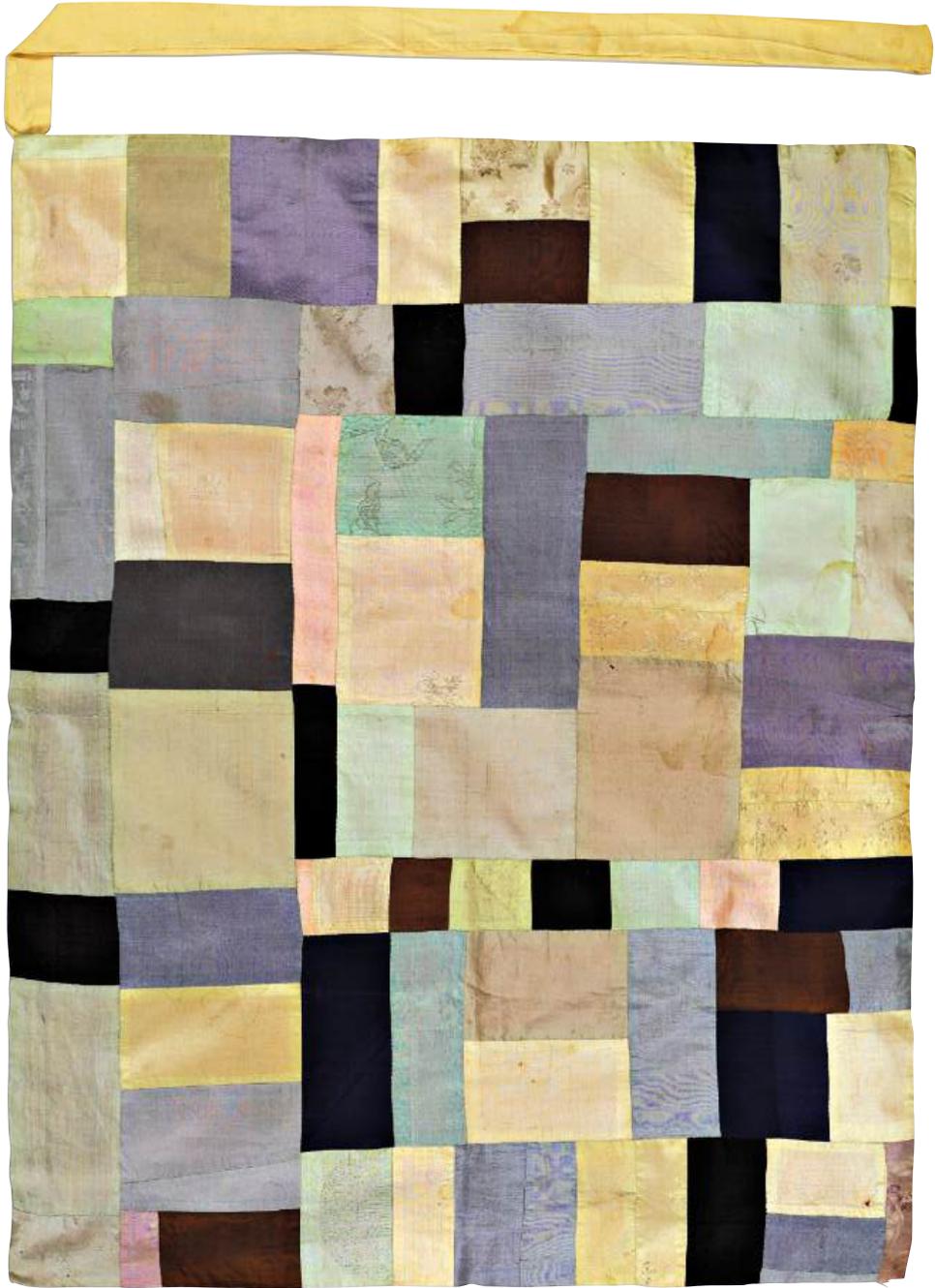
40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80×102.5cm 겹, 명주 20C

일정한 크기의 명주조각을 벽돌을 쌓듯이 이은 조각보이다.
사선방향으로 같은 색이 연결되게 계단식 배열한 것이 조형미를 더한다.

41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8×85cm 끈 79×4cm 겹. 명주·문주·문단·무명 20C







42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of Various Silk Gauze
67×67cm 겹, 갑사 · 진주사 · 은조사 · 향라 · 문향라 19C



43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95×95cm 겹, 명주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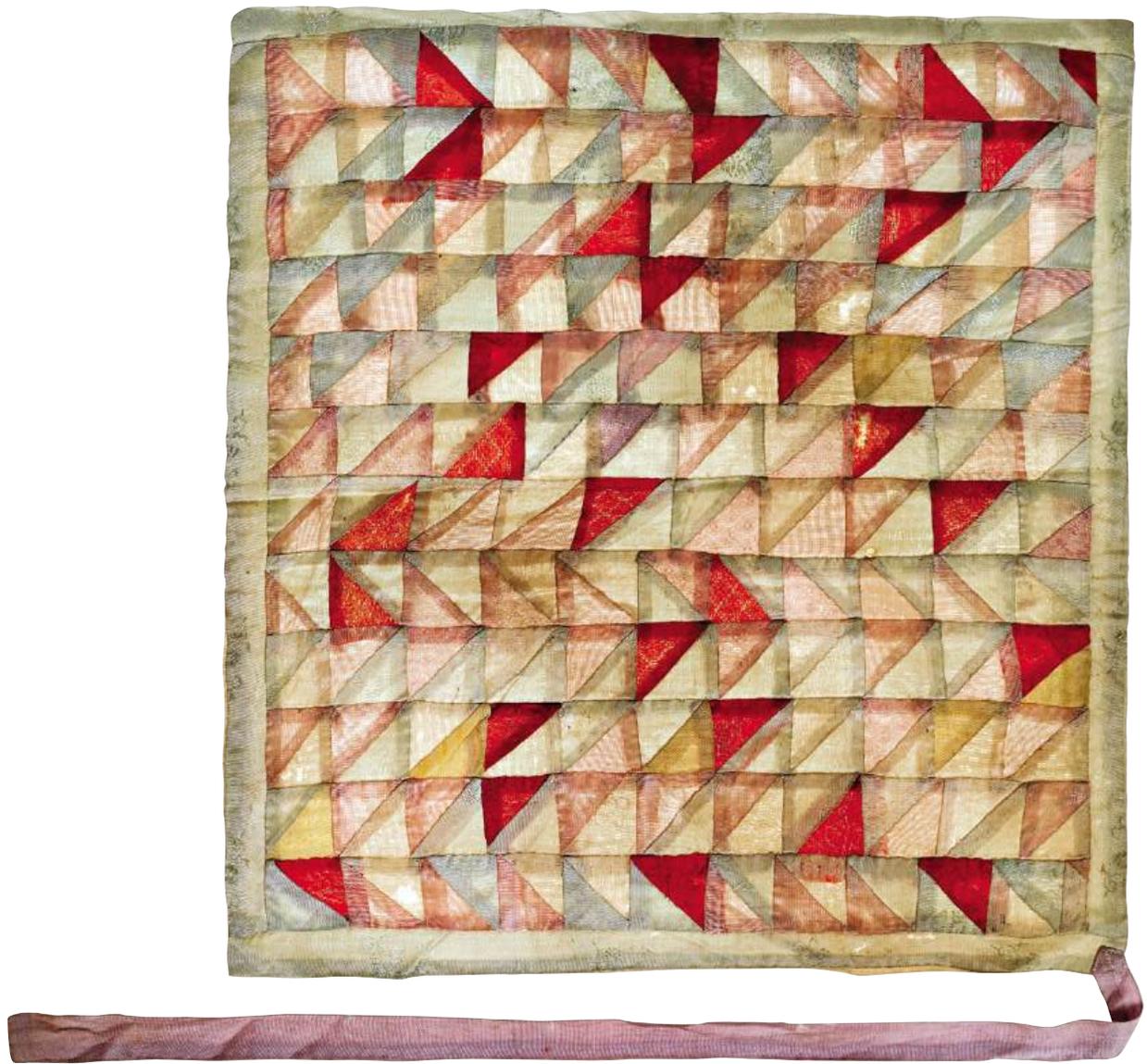
44 조각보 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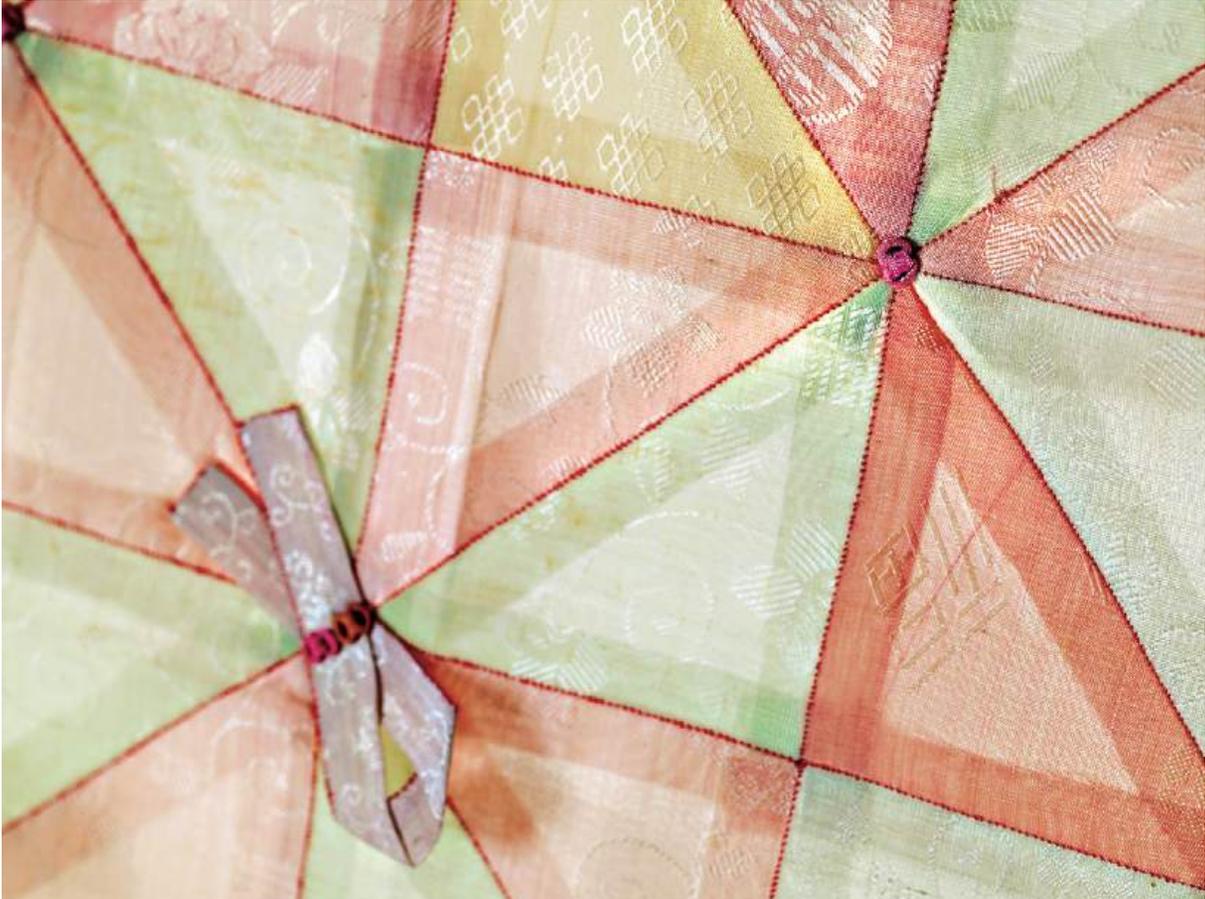
Patchwork Cover
88×88cm 겹, 명주 20C

45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er

37.5×37.5cm 끈 51×1.6cm 겹, 숙고사·진주사·순인·명주·은조사·문주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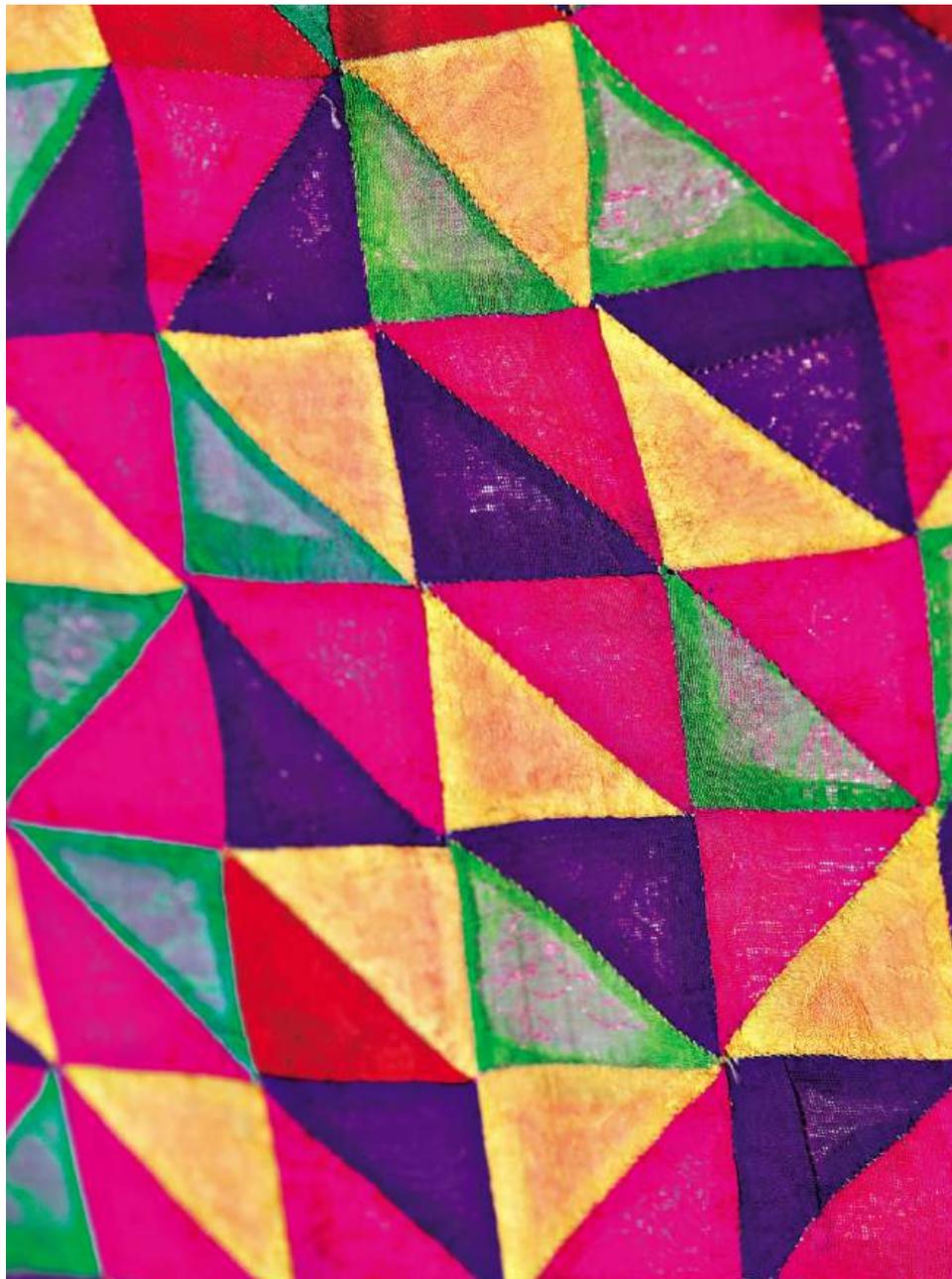






46 조각보 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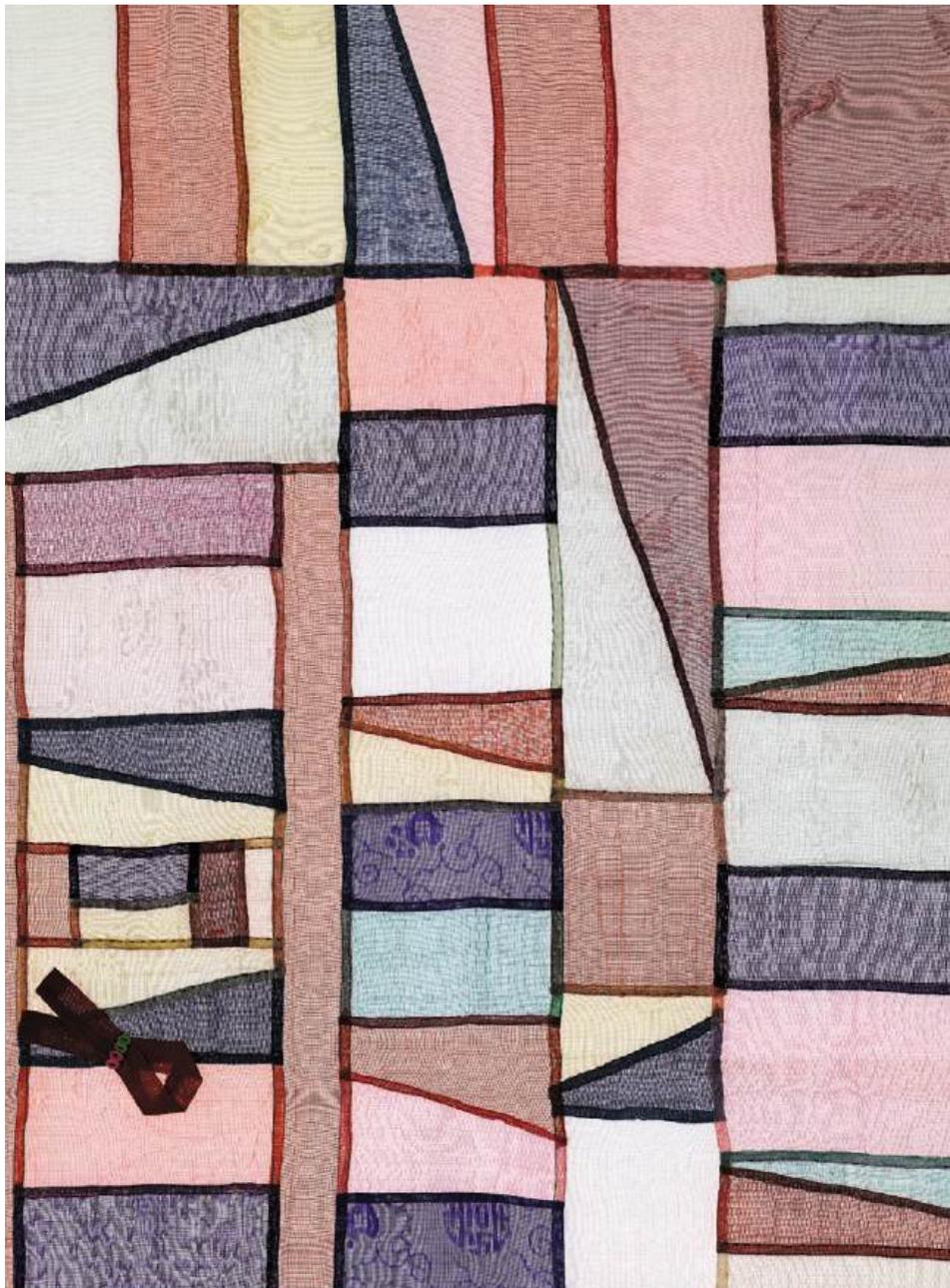
Patchwork Cover
60×60cm 겹, 명주·문주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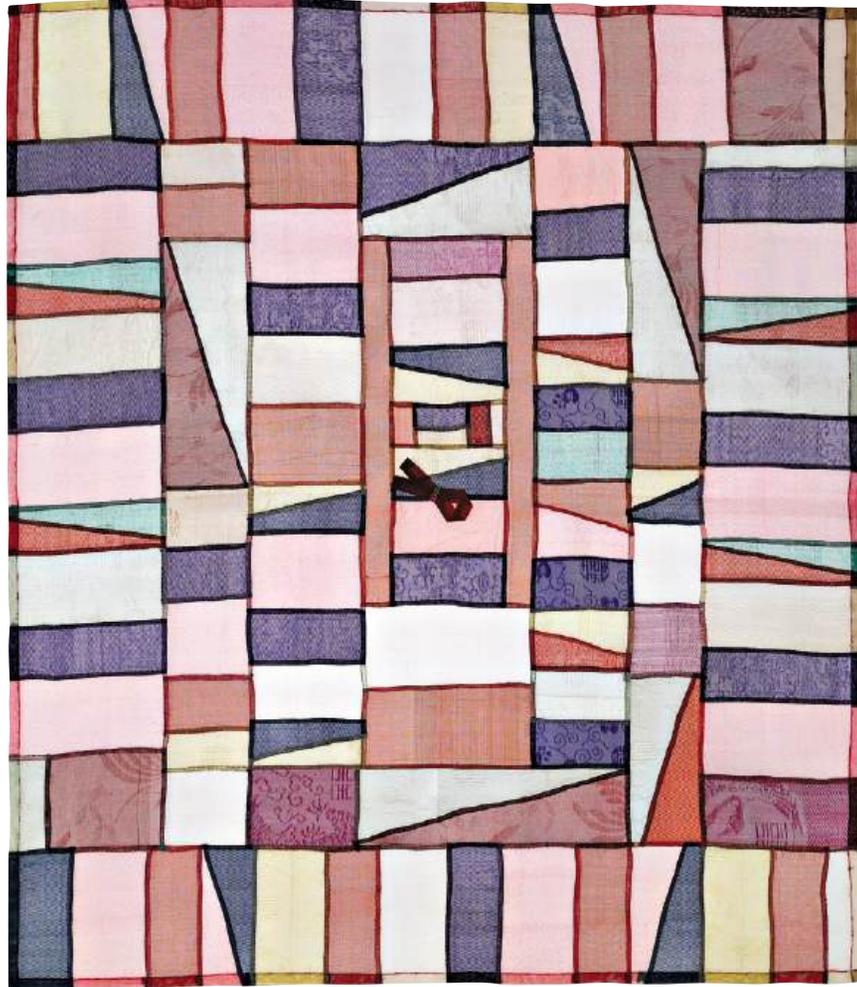




47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48.5×48.5cm 겹, 감사·순인·생고사·문은조사·생명주 20C





48 조각보 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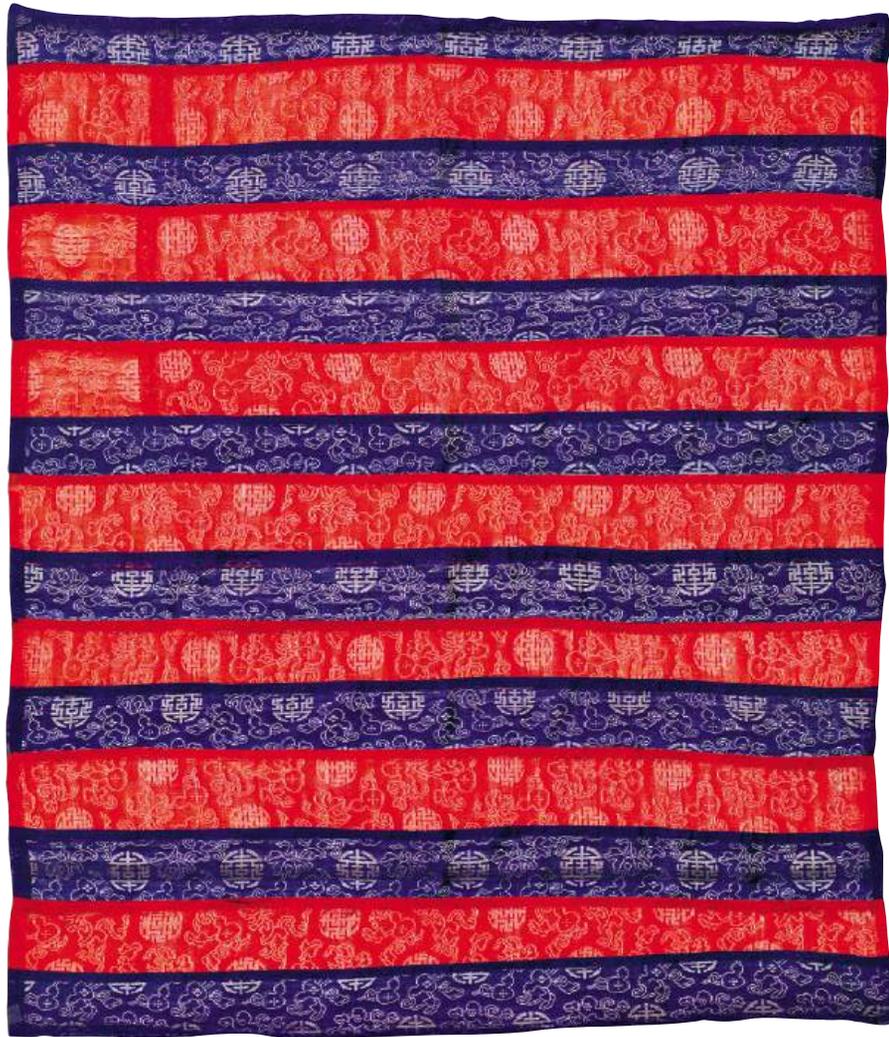
Patchwork Cover

78.5×90cm 홑, 감사·순인·생고사·문은조사·은조사 20C



49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of Silk Gauze
49×49cm 겹, 황라 20C



50 혼례용청홍조각보 裯

Blue and Red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Wedding

67×76cm 겹, 숙고사·국사 20C

청색과 홍색의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는 이 보자기는 옷감 조각을 수직으로 잘라 배열하였다.

아름다운 구성미

조형의 자유로움 **수보**

51 자수보 刺繡襪

Embroidered Wra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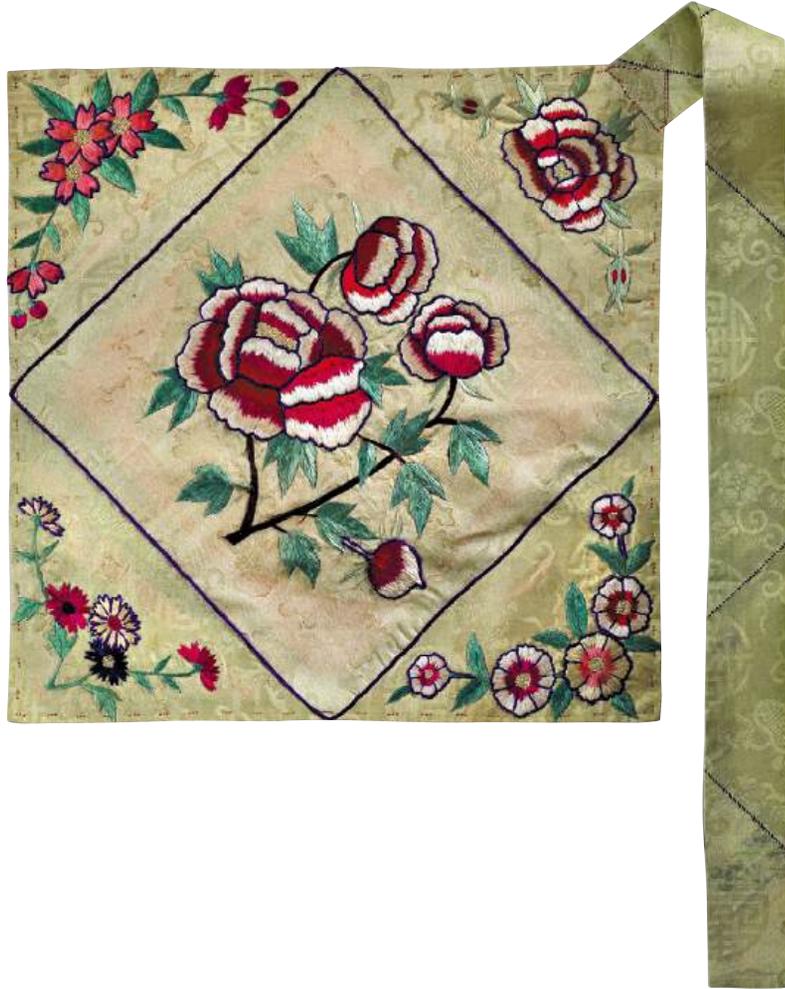
34×34cm 끈 52.5×5cm 면, 명주 20C

다홍색 면에 연화, 물고기, 새, 연밥 등을 곱게 수놓았다.

안쪽은 겉감과 보색의 명주를 대고 네 귀퉁이에 모두 끈을 달았다.







52 자수패물보 刺繡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for Wedding
 29.5×29.5cm 끈 51×4cm 겹, 문단 20C

두록색 문단에 모란을 크게 수놓고 네 귀퉁이에 패랭이꽃, 나팔꽃 등의 작은 꽃무늬로 장식하였다. 한쪽에만 달린 끈은 귀한 물건을 싸고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53 혼례용패물보 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with Decorated Ties for Wedding Jewelry
34.5×34.5cm 끈 42.5×5cm, 50×5cm 겹, 명주·문단 20C



54 화조문자수보 刺繡褙

Wrapping Cloth for Wedding with Embroidered Pattern of Flowers and Birds
39×39cm 끈 40×4.5cm, 고리 14×1.5cm 겹, 명주·문주·광목 20C





55 혼례용패물보 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for Wedding Jewelry
39×39cm 끈 31.5×4.5cm, 51×4.5cm 겹, 국사·속고사·문주 20C





56 혼례용 화목문보 花木紋褄

Wrapper for Wedding with Embroidered Pattern of Flowers and Trees
41.5×41.5cm, 끈 52.5×3cm 겹, 옥양목·소창 20C

홍색 옥양목에 화목문(花木紋)을 수놓은 패물보로 강릉, 이북 등 관동지방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57 자수보 刺繡褌

Embroidered Wrapper

43×43cm, 끈 43×3cm 겹, 옥양목 20C



58 혼례용 화목문자수보 刺繡褙

Wrapper for Wedding Jewelry with Embroidered Pattern of Flowers and Trees
39×39cm, 끈 32×2cm 겹, 육양목 20C



59 수보 繡褙

Part of Embroidered Wrapping Cloth
30×32cm 겹, 공단·면메리야스 20C

청색 공단 위에 모란과 각종 작은 꽃무늬를 수놓았다.



아름다운 구성미

반복과 변용 판보, 방장

60 판보(이불보) 唐彩花紋襪

Wrapping Cloth Stamped and Painted with Traditional Chinese Pigment Used in the Palace
182×202cm, 끈 121×15cm 홀, 당목 19C

홍색과 분홍색의 당채를 사용하여 보판으로 찍은 다음 채색한 당채보(唐彩襪)로 궁에서 제작하여 사찰로 보내 불복장용(佛腹藏用)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모란과 연꽃을 탐스럽게 그려 넣어 부귀와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수복강령(壽福康寧), 자손창성(子孫昌盛)의 문자로 간절한 기원의 마음을 담았다. 네 귀에 끈을 달고 테두리는 다섯땀상침을 곁게 하였다.







61 판보(이불보) 板褌

Stamped Wrapping Cloth Used in the Palace
177×177cm 끈 80×6cm, 86×6cm 홀, 광목 20C

세 귀에 끈이 달려있는 이 궁보는 원룡문, 태극문, 국화문, 구배문, 소화문, 만자문, 회자문, 수복자문 등을 조각한 평면보판을 이용해 먹물로 찍었다.





62 혼례용판보 板褙

Stamped Wrapping Cloth for Wedding Used in the Palace
 177×177cm 끈 (194+66)×13cm, 60×3cm 홀, 무명 20C

주로 궁중에서 사용된 궁보로 조각으로 이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천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불을 싸는데 사용했던 이 궁보는 나무에 조각하여 판을 만든 후 찍어낸 판보로 석류, 연화, 국화, 나비무늬와 회자(回字), 수복강령(壽福康寧), 부귀다남자(富貴多男子) 등의 문자가 찍혀 있다.





63 방장 房帳

Applied Door Curtain with Chinese Character and Bat Design Used in the Palace

230×141.5cm 겹, 매화문단·무문단·나무·쇠 20C

겨울철 외풍을 막기 위하여 솜을 두고 누벼 만든 방장(房帳)으로 궁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64 방장 房帳

Appliqued Door Curtain with Chinese Character and Bat Design Used in the Palace
200×148cm 겹, 면두독직 · 나무 · 쇠 20C

궁궐에서 사용하던 방장(房帳)으로 문이나 창문에 치는 휘장이다.

무늬가 없는 주(紬)에 가운데에는 원형의 수(壽)자를 도안하고 모서리는 박쥐무늬로 장식하였다.







평생을 함께한 긴요함

생활 보자기



평생을 함께한 진요함

생활 보자기

65 바리보(남자용) 襟

Wrapper for Men's Rice-bowl
33×32cm 끈 53×3cm 홀, 무명 20C

무명에 쪽물을 여러번 들여 염색한 홀보로 남성용 주발을 싸는데 사용했다.
홍화로 염색한 무명으로 마주보는 두 귀에 바대를 대고 한 귀통이에 끈을 달았다.



66 바리보(여자용) 襦

Wrapper for Women's Rice-bowl
29.5×29.5cm 끈 64×5cm 겉, 명주·무명 20C

겉은 홍색 명주, 안은 분홍색 무명을 대어 만든 겹보자기로 여성용 낫주발을 싸는데 사용했다. 사슴, 나비, 꽃 등을 단순하게 도안하여 수놓고 테두리를 거치문으로 장식하였다. 기러기매듭을 이용하여 끝을 십자로 짙근 제비부리 모양의 연두색 끈을 달았다.



67 주발보 褌

Rice-bowl Cover Quilted with Cotton Batting
 15×14cm 겹, 솜, 문단·모본단·생고사·명주 20C
 두터운 솜을 대어 보온성을 높인 주발 덮개이다.
 꼭대기에 오색 조각을 이용하여 장미문으로 장식하였다.

68 주발보 褌

Rice-bowl Cover Quilted with Cotton Batting
 15×14cm 겹, 솜, 문단·모본단·생고사·명주 20C
 겹은 열다섯 조각의 색동을 이어 장식하고 안은 두록색 명주를 대었다.

69 주발보 褌

Rice-bowl Covering Padded with Cotton Batting
 15×16cm 겹, 솜, 모본단·생고사·명주 20C
 겹은 감색 모본단, 안은 진분홍색 명주를 대고 솜을 두텁게 댄 원통형의 주발 덮개이다.



70 매화문 삼각바리보 褌

Women's Rice-bowl Wrapper with Embroidered Pattern of Plum Blossom
 24.5×33cm 끈 29×1.5cm 겹, 명주·문주 20C

넛쇠로 만든 여성용 주발을 싸는 보자기이다. 삼각형으로 재단한 것이 독특하며
 홍색 매화문주 위에 매화, 나비, 영지, 화조문을 앞뒤 다르게 수놓았다.
 세 꼭지점에 끈을 달고 사이에 종이심지를 대어 만들었다.





71 소반 조각상보 褙

Patchwork Food Cover
49.5×53cm 겹, 명주·모본단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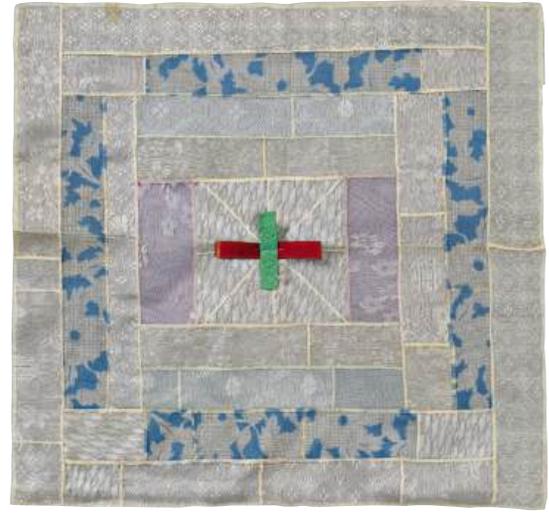




72 자수조각덮개 褙

Patchwork Cover with Embroidery and Small Tassels at the Four Corner
39.5×53cm 겹, 모본단 · 문주 20C

규칙적인 사각형을 이어 만든 덮개로 모란 · 도라지꽃을 수놓았다.
네 귀에 오색실로 술을 달아 장식하였고 중심에도 꼭지 대신 술을 달았다.



73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8×68cm 홑, 진주사·갑사·숙고사 20C

사(紗)종류의 긴 사각형 옷감을 색상별로 이어 만들어 입체감이 나는 보자기이다. 흠질로 조각을 이어 홀로 구성하고 가장자리는 석땀상침으로 마무리하였다. 황색 사각형과 청색 사각형의 네 귀퉁이에 홍색 박쥐단추를 달아 장식하였다.

74 상보 褙

Silk Gauze Patchwork Food Cover
46×44cm 겹, 갑사·문은조사·진주사 20C

무늬가 있는 얇은 사(紗) 종류의 옷감을 사각형으로 이어 겹으로 구성하고 부분적으로 나뭇잎 무늬가 나열된 조각도 있다. 중심에 바탕과 구별되게 대비되는 색을 이용해 열십자 꼭지를 달아 편리성을 강조했다.



75 조각상보 褙

Patchwork Food Cover
57×64cm 겹, 갑사·순인·생고사·문은조사·생명주 20C



76 누비보 褙

Quilted Food Cover
31×31cm 겹, 문주 20C



77 누비보 襟

Quilted Food Cover
48×62cm 겹, 명주·솜 20C
분홍 명주에 원형으로 기계누비 하였다.

78 누비보 襟

Quilted Food Cover
48×62cm 겹, 명주·솜 20C
청색 명주에 돌림문 사각형을 기계누비 하였다.





79 삼베조각보 襟

Hemp Patchwork Food Cover
107×110cm 홑, 삼베 20C



80 자수식지보 襟

Embroidered Food Trays Cover Trimmed with Paper
30×40cm 겹, 명주·종이 20C

81 자수식지보 襟

Embroidered Food Trays Cover Lined with Paper
30.5×44cm 겹, 노방·명주·종이 20C

음식을 덮을 때 쓰는 식지보로 안쪽에 종이를 대어 실용성을 더했다.
강한 대리로 테두리를 넓게 두르고 가운데는 송학무늬의 자수를 놓았다.
오른쪽 변 중심에 오색실로 실고리를 만들어 꼭지를 대신한 것이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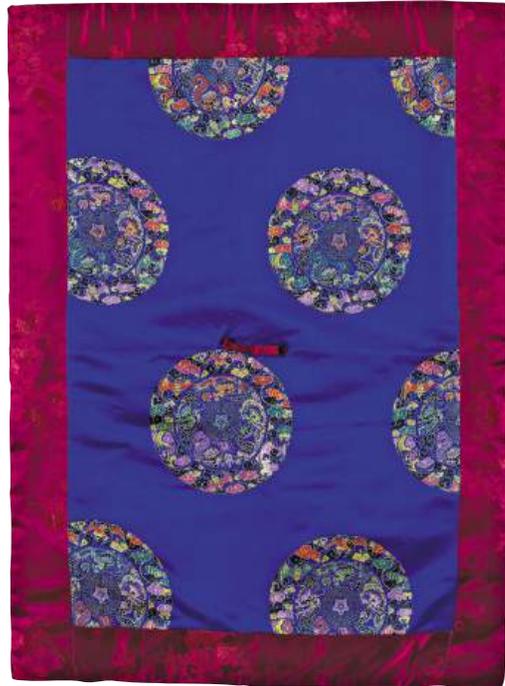


82 자수식지보 襟

Embroidered Silk Cover Trimmed with Paper
31×25cm 곁, 모본단 · 문주 · 옥양목 · 종이 19C

83 자수식지보 襟

Embroidered Food Tray Cover Trimmed with Paper
34×26.5cm 곁, 면아사 · 종이 20C



84 모시덮개 褙

Ramie Cover
64×85cm 겹, 모시 20C

85 원용문상보 褙

Food Cover with Round Dragon Design
45×61.5cm 겹, 모본단 · 화문양단 · 나일론망사(합성섬유) 20C



86 화문수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with Flower Embroidery

35.5×35.5cm 겹, 모본단 20C

조각보와 자수보를 결합 보자기이다. 테두리는 색동 잇기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안쪽은 매화·난초·국화·패랭이꽃을 수놓은 조각을 대각선으로 이었다.

자수보의 가장자리는 금사로 징고고 중심에 녹색 꼭지를 달아 박쥐단추 두 개로 눌러주었다.



87 약탕관·약수건 褌

Draining Cloth for Herb Medicine
36×41cm 홑, 삼베 20C



88 이불보 褌

Wrapping Cloth for Bedding
207×207cm 끈 142×11.5cm 홀, 모시 20C





89 강보 · 누비포대기 褌

Quilted Wrapper for Baby
강보 109×105cm, 누비포대기 107×108cm 겹, 무명·명주 20C

90 서답보 褌

Patched Wrapper for Sanitary Towels

분홍:49.5×48.5cm 끈길이70cm, 끈너비3cm

홍색:62×61cm 끈길이82cm, 끈너비4.3cm 겹, 화문단·문주·문인조·공단 20C

서답을 넣고 접어서 끈으로 묶어 보관했던 보자기로

손바느질과 재봉틀바느질을 병행하여 만들었다.

홍색과 노랑 화문단을 이어 만든 서답보는 안감을 분홍색 문주로 대고 청색 끈을 한 개만 달았다.

분홍색 서답보는 현대적인 색감을 살렸으며 안감의 한 모퉁이가 남아 다른 감을 대서 썼다.

두 개의 끈이 달렸으며 재봉틀로 바느질하였다.





91 빨래보 褌

Wrapping Cloth for Laundry
147×148cm 흘, 무명 20C
조각으로 이었다.



92 버선본보 襪本褙

Case for Storing Socks Pattern
12×9.5cm 겉, 모직·명주 20C

겉은 홍색 모직, 안은 두록색 명주로 되어 있으며 버선본을 보관하는 보의 일종이다.
평수로 화문을 수놓고 테두리는 징금수 기법을 사용하였다.
가운데에는 연봉단추를 달아 장식하였다.

93 버선보 褙

Wrapping Cloth for Socks
92×57cm 홉, 옥양목 20C



94 모시조각보 褌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84×85cm, 끈 78×5cm 홀, 모시 20C



95 모시조각보 褌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04×113cm, 끈 69×5cm 홀, 모시·무명 20C

소색과 연한 황색, 짙은 황색의 모시조각을 크기별로 점진적인 배열을 하였다.
가운데는 꽃무늬를 장식하고 네 귀퉁이에 오각형 바대를 대고 소색 무명 끈을 달았다.
색면 분할의 세련미는 현대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

96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5.5×65.5cm, 끈 68×3.5cm 겉, 순인·갑사·숙고사·생고사·명주·황라·은조사 20C





97 화조문수뒹개 褙

Embroidered Cover
46×46cm 흙, 광목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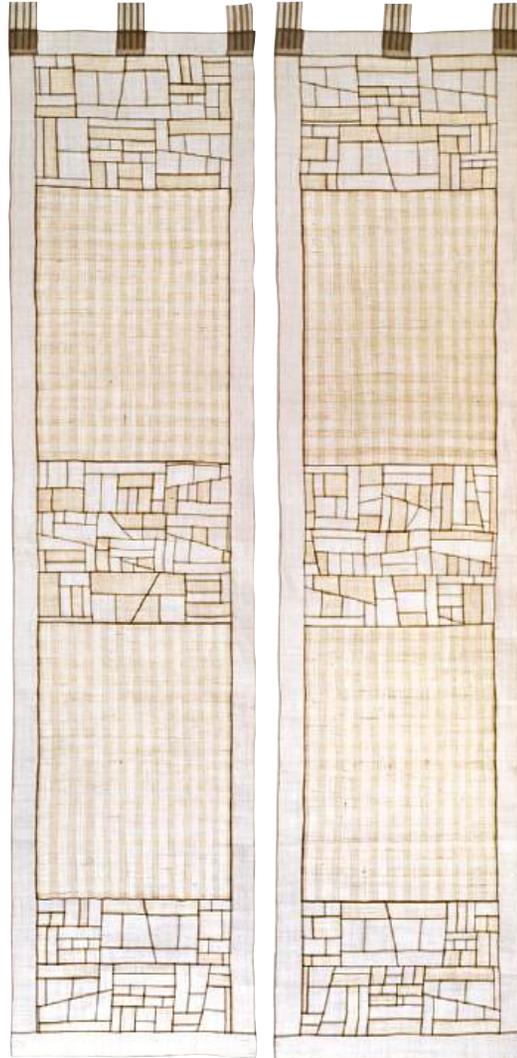
98 자수햇대보 衣桁褙

Embroidered Cloth for Hanger
117.5×165cm 흙, 옥양목 20C

옷을 걸 수 있게 만든 햇대를 덮는 보자기로 화조문과 나비를 수놓았다.
꽃은 현세의 부를, 새와 나비는 환희나 복을 상징한다.

99 자수경대보 鏡臺褙

Embroidered Cover for a Mirror Stand
78×41cm 겹, 공단 20C



100 모시가리개 襖

Ramie Patchwork Drapery
186×45cm 홀, 모시 20C



101 원산 머리수건 裯

Women's Headdress used in Wonsan
90×90cm 흙, 무명 20C

102 평안도 머리수건 裯

Women's Cotton Headdress used in Pyeongan-do Area
90×90cm 흙, 무명 20C

103 함경도 머리수건 裯

Women's Headdress used in Hamkyung-do Area
45×100cm 흙, 무명 20C



104 누비머리보 襟

Women's Quilted Headdress used in Gaeseong area
90×90cm 겹, 명주·솜 20C

개성에서 사용하던 머리를 싸는 보자기로 솜을 두고 자색 명주로 지었다.
안쪽에 46.5×45.5cm 크기의 소색 명주를 따로 대어 더러움이 타는 것을 방지했다.



105 책보 冊褌

Wrapping Cloth for Carrying Books
110×110cm 홀, 무명 20C

책을 싸는 보자기로 무명에 쪽물을 들어 만들었다.

106 회초리보 褌

Wrapping Cloth for Storing Flogging Devices
90×90cm 홀, 무명 20C

싸리나무 가지로 만든 회초리를 싸 두던 보자기이다.



107 한지책보 褙

Korean Paper Wrapper for Storing Books or Documents

73×92cm 겹, 종이 20C

연습종이를 두 겹 붙여 만든 한지책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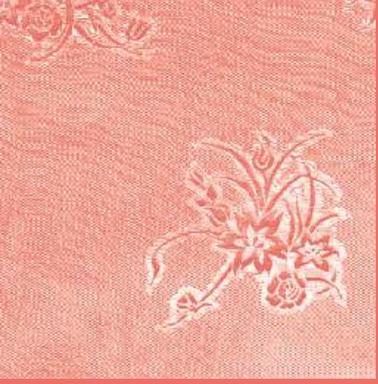
108 곶나리 붓짐 襪

Traveler's Knapsack and Straw Sandals

홀, 생모시 · 무명

걸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 어깨에 메는 작은 짐을 싸는 보자기로 생모시 조각을 이어 붙이고 무명 끈을 달았다.





정중한 의례

축복 혼례

숙연 장례

엄숙 종교예식 - 불교·천주교



정중한 의례
축복 혼례

109 사주함보 四柱函褙

Decorated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Chest
106×110cm, 띠 62×93cm 겹, 진주사 20C

사주함을 싸는 청홍겹보이다. 사주함 안에는 사주를 홍색 사주보로 싸 넣는다.



110 함보 函褙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Chest
161×164cm 겹, 도류불수사 20C

혼례 때 함을 싸는 겹보자기로 도류불수(桃榴佛手)무늬가 있는 사(紗)로 만들었다.
네 귀에 금전지에 싼 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111 혼서지보 婚書紙褙

Wrapping Cloth for Marriage Letter to Bride's Family from the Groom's
60×60cm 흙, 명주 20C

전통 혼례의 절차 중 납채(納采)에 해당하는 의식에 사용된다.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신랑 아버지가 써서 신부 아버지에게 보내는
혼서지(婚書紙)를 싸는 검은색 비단 겹보로 네 귀에 금전지를 달았다.



112 기러기보 褌

Embroidered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Goose
39×39cm, 끈 40×4.5cm, 고리 14×1.5cm 겹, 명주·문주·광목 20C

전통혼례의 전안례에서 사용되는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싸는 보자기이다.
전안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처음으로 행하는 의례. 기러기는 짝이 죽어도 의리를 버리지 않는 습성을 가진 새로 신의·화목·정절을 상징한다.



113 패물보 珮物褙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Jewelry from In-law Family
76×76cm, 끈 85×5cm 겹, 공단 20C

시댁에서 현우고례(見舅姑禮), 상호례(相互禮)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신부를 대청에 앉히고 관례(冠禮)를 베풀어 쪽을 지게하며, 패물을 내리는데 이때 사용된 패물보이다.

114 폐백보 幣帛褙

Gold Sticking Wrapping Cloth for Wedding Foods to In-law Parents
161×164cm 겹, 도류불수사 20C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대추와 편포 등의 폐백음식을 싸는 보자기이다. 먼저 분홍 속보자기로 싼 후 네 귀에 금전지를 단 청홍겹보로 싸고 근봉으로 묶는다.



115 삼베화문자수보 刺繡褌

Hemp Embroidered Wrapping Cloth
38×38cm, 끈 44×4cm 곁, 삼베·명주 20C



116 명주보 襟

Silk Tabby Wrapping Cloth
76×76cm 겹, 명주 20C



117 사주보 四柱襪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Document of Groom's Horoscopic Date
67.5×67.5cm 겹, 화문단 20C

118 혼례보 婚禮襪

Wrapping Cloth for Wedding
55×55cm 홑, 합성섬유 20C



119 패물보 珮物褓

Wrapper for Wedding Jewelry with Decorative Ties
and Embroidery at One Corner
40×40cm, 끈 28×5cm, 55×5cm 겹, 모본단 · 명주 20C

120 패물보 珮物褓

Embroidered Wrapper for Wedding Jewelry
39×39cm, 끈 31×4cm, 45×4cm 겹, 명주 · 문주 · 문단 20C



121 패물보 珮物褓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Jewelry with Four Ties
of Birth and Time of Bridegroom
41×41cm, 끈 44.5×4.5cm 겉, 국사·속고사·문주 19C





122 패물보 珮物褙

Wrapping Cloth for Wedding Jewelry with Decorative Patchwork
and Small Tassels on the Tie

36.5×36.5cm, 끈 33×5.7cm, 60×5.7cm 겹, 모본단 · 인조견 20C



123 함보 函褙

Gold Sticking Wrapping Cloth for Wedding Chest
161×164cm 겹, 도류불수사 20C

도류불수무늬가 있는 사(紗)에 금박(金箔)을 찍었다.
혼례 때 함을 싸는 겹보자기로 네 귀에 금전지에 싯 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124 혼례보 婚禮襪

Wrapping Cloth for Wedding

72×72cm 겹, 공단 20C

72×72cm 홑 20C

76×76cm 겹, 숙고사 20C



125 족두리보 襟

Ceremonial Coronet for Women & Wrapper
80×102.5cm 겹, 명주 20C

조선시대 여성용 예관(禮冠)의 하나로, 장식을 하지 않은 것을 민족두리, 위·중앙·옆면에 칠보·밀화·옥 등으로 꾸민 것을 꾸민 족두리라 한다. 검은 비단을 이어 등글게 하고 안에 솜을 채워 넣고, 옥석(玉石)으로 꾸미지 않은 이 유물은 제사 때 착용한 것이다.



126 명주족두리보 襟

Silk Tabby Wrapping Cloth for Women's Coronet
53×53cm, 끈 92×3.3cm 겹, 명주 20C

127 면사보 面紗褙

Ceremonial Veil used by the Royal Family
140×218cm 홀, 은조사 19C(재현)

궁중에서 대례복을 입고 장소를 이동할 때 머리에 쓰는 내외옹 쓰개이다.
1폭이 35cm인 얇은 검은색 은조사 4폭을 잇고 금박을 찍어 장식하였다.





정중한 의례

숙연 장례

128 명정 銘旌

Covering Cloth for the Coffin
172×64cm 흘, 견 조선시대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 등을 쓴 기(旗)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남오성(1643~1712) 묘에서 출토되었다. 흘겹으로 된 직사각 형태이다. 명정글씨는 결손된 부분을 제외하면 '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南公之柩' 라고 쓰여져 있다.



129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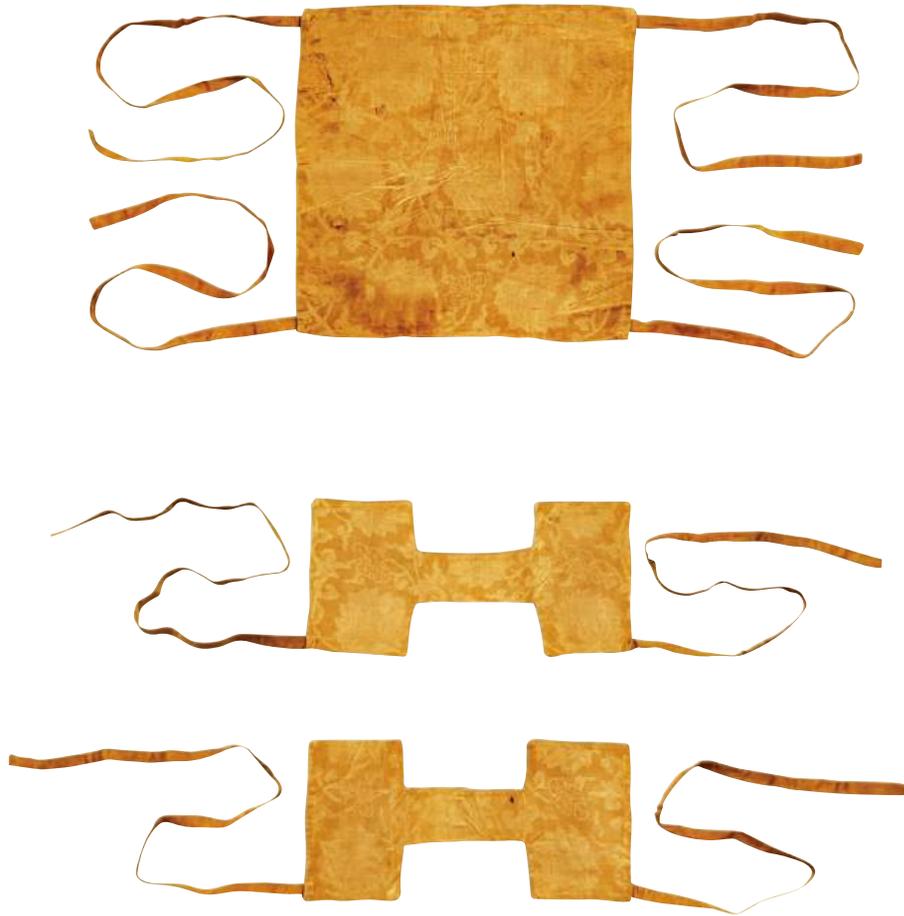
Inner Shroud Wrapping the Corps
216×208cm 겹, 먼 조선시대

염(殮)을 할 때 시신을 싸는 이불이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류인서(?~1644) 부부 묘에서 출토되었다. 장방형이며 겹감과 안감 모두 면으로 되어있다. 겹감의 깃부분은 황색으로 한 폭(너비 33cm)을 사용하였다. 길은 남색으로 6폭(한 폭의 너비 약 33cm)을 이어 만들었다. 안감은 흰색으로 6폭으로 이어졌으며 한 폭의 너비는 약 33~35cm이다. 쪽색이 일부 퇴색되었다.

130 이불

Outer Shroud Wrapping the Corps
277×199cm 겹, 견 조선시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남오성(1643~1712) 묘 출토된 이불이다. 염(殮)을 할 때 시신을 싸는 것으로 안에 숨이 들어있지 않은 겹이불이다. 이불 형태는 동정, 깃, 길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겹감과 안감이 밀리지 않도록 두땀상침이 되어 있다.



131 먹목 幪目

Wrapping Cloth for the Dead's Face
24×24cm 겹, 견 조선시대

염(殮)을 할 때 시신의 얼굴을 싸는 사각형의 천으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남오성(1643~1712) 묘에서 출토되었다. 앞면은 연화만초문단(蓮花蔓草紋緞)이고, 뒷면과 끈은 공단(貢緞)이다. 4개의 끈이 달려 있고 각 끈의 길이는 약 49~50cm, 폭은 약 0.9~1cm이다.

132 악수 幄手

Wrapping Cloth for the Dead's Hands
전체길이 121cm, 24×11.5cm 겹, 견 조선시대

소렴할 때 시신의 손을 싸는 형겅으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남오성(1643~1712) 묘에서 출토되었다. 겹감은 연화만초문단(蓮花蔓草紋緞), 안감과 끈은 공단(貢緞)이다. 가운데 부분은 위·아래를 각각 3.5~4cm씩 줄여서 좁은 형태이고, 안감의 좌·우 양쪽 끝 아래에 가늘고 긴 끈이 2개 달려 있다.



133 조발낭 爪髮囊

Pouch for the Dead's Hair
9.5×7.8cm 겹, 견 조선시대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을 넣는 주머니로 입관할 때 관(棺)에 함께 넣는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남오성(1643~1712) 묘에서 출토되었다.
연화만초문단으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로 주머니 중앙에 붓글씨로 '頭髮' 이 적혀 있다.
주머니 입구에는 주름을 잡았던 2가닥의 실이 세 땀 정도 들성들성 바느질 되어 있다.

134 오낭 五囊

Pouch for the Dead's Nails and Hair
5.3×5.4cm, 5.1×5.8cm, 5.3×5.7cm 겹, 견 조선시대

시신을 목욕시킬 때 손톱과 발톱을 넣는 주머니로 입관할 때 관(棺)에 함께 넣는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남오성(1643~1712) 묘에서 출토되었다.
연화만초문단으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 곁에 붓글씨로 각각 '左手' '左足' '右足' 이 적혀 있다. 주머니 입구에는 주름을 잡았던 2가닥의 실이 세 땀 정도 들성들성 바느질 되어 있으며 실의 끝이 풀려있는 상태이다.



정중한 의례

엄숙 종교예식 - 불교

135 후령통보 喉領筒褙

Wrapping Cloth for Huryeongtong
9.5×6.5cm 늦쇠 조선시대

합과 같은 형태의 후령통이 황초폭자에 싸여져 있다.
그 안에는 팔엽주와 오보병, 오색실이 들어있다.





136 황초폭자 黃綃幅子

Wrapping Cloth for Huryeongtong
35×35cm 홀, 초 1639년

황초폭자는 후령통을 싸고 있는 것으로 동서남북 사방위(四方位)를 주사로 표시하였다. 후령통을 감싼 다음 오색실로 감고 다시 녹색화조문단(綠色花鳥紋緞)을 이용하여 마지막 봉을 하였으나 봉서(封書)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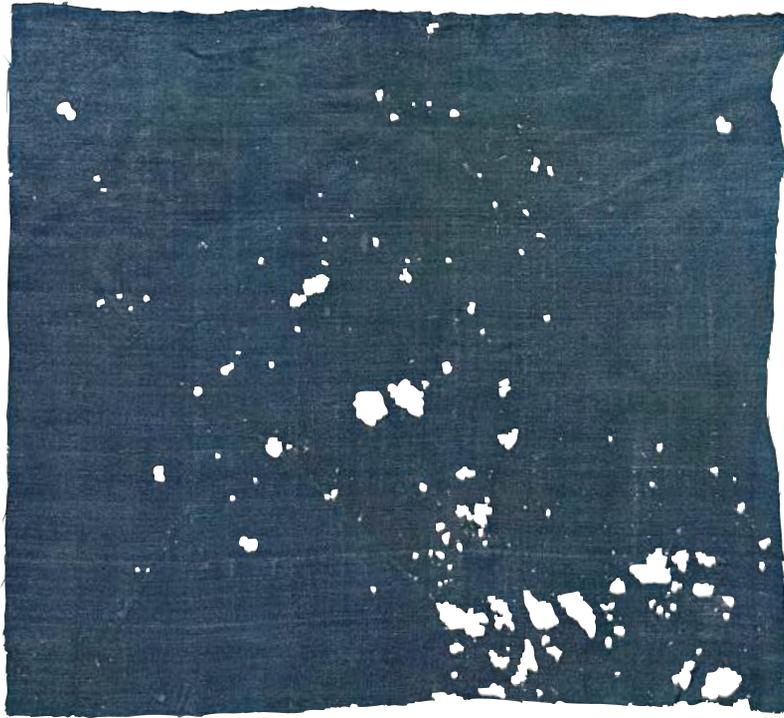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한지에 주사나 묵서로 '封'이라는 글자를 써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137 황초폭자 黃綃幅子

Wrapping Cloth for Huryeongtong
18.9×17.6cm 홀, 초 1726년

황초폭자는 후령통을 싸고 있던 것으로 방형(方形)의 직물 사방에 주사로 방위를 가리키는 범서를 써 놓고 한지로 봉하였다.



138 청색주사리보 靑色紬舍利褌

Wrapping Cloth for Relic(Sarira) of a Buddhist Priest
28.2×25.5cm 흘, 주 1639년

평직의 청색보(靑色褌)에서는 사리 58과와 오보(五寶), 연보라소화문단, 녹색화조문단(綠色花鳥紋緞)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물들은 사리보의 네 귀를 접어 감쌌고 오색실로 묶여 있었다.



139 녹색주오곡보 綠色紬五穀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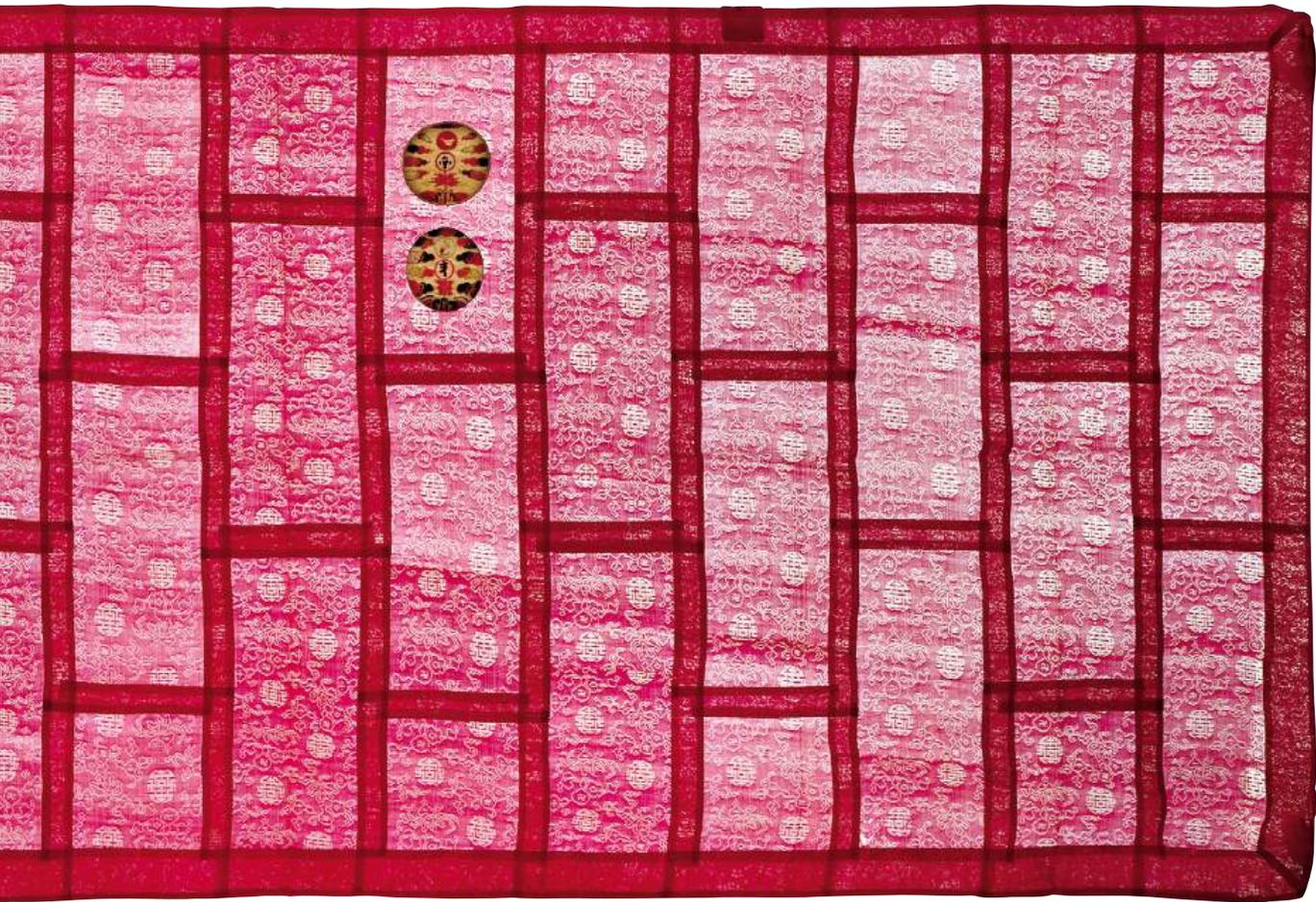
Wrapping Cloth for five kinds of Crops
31.5×30.8cm 홀, 주 1639년

곡식과 약재, 나뭇잎 등의 여러 가지가 모두 같이 녹색주보자기에 싸여 오색실로 감겨 있었다.
보자기는 유충으로 인한 훼손이 보인다.



일엽스님 (1896~1976)

1896년 평안남도 용강군 삼화면 덕동리에서 김용겸씨와 이마대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가하기 전에는 신여성으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으며, 문필가로서도 이름을 날리었다. 속성은 김이요, 이름은 원주이다. 서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였으며, 일본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화가 나혜석과 함께 대담한 행동과 필설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선구적으로 실천하였다. 1920년에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문예지 <페허>의 동인으로 참가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잡지인 <신여자>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20세까지는 기독교신자였으나, 1928년 금강산 서봉암에서 이성혜비구니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1933년에 수덕사에서 입산하여 만공스님의 제자가 되어 견성암에서 수행하였다. 1962년에 나온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수상록이 많이 알려져 있다.



140 가사 袈裟

Kasaya Left by Priest Ilyeop
201 × 86.7cm 겹, 속고사 20C

일제시대 조계종 차별화로 갈색가사를 입게 되었는데, 태고종(선암사) 천태종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사천왕을 의미하여 天 . 王 을 네 귀퉁이에 붙이지만 이 가사에는 사천왕 글씨가 없다. 13조로 구성된 이 가사는 일엽스님의 유품으로 매 조각마다 통문을 두어 한쪽에서 구슬을 넣으면 통문을 통해 반대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는 세상 모든 이치가 상통한다는 뜻이다. 선단은 5.2cm 로 석 담 상침했는데, 바느질이 정교하고 아름답다.



141 바루보 襟

Bowl Wrapping Cloth Left by Priest Ilyeop
30×162cm 겹, 면 20C

일엽스님의 바루보로 일자로 묶어 사용하였다. 소색 면을 엇선으로 잘라
시접 0.7cm를 두고 통솔로 바느질하고, 한쪽은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42 수저집 褌

Pouch for Storing Spoon and Chopsticks

8.3×42.5cm 겹, 면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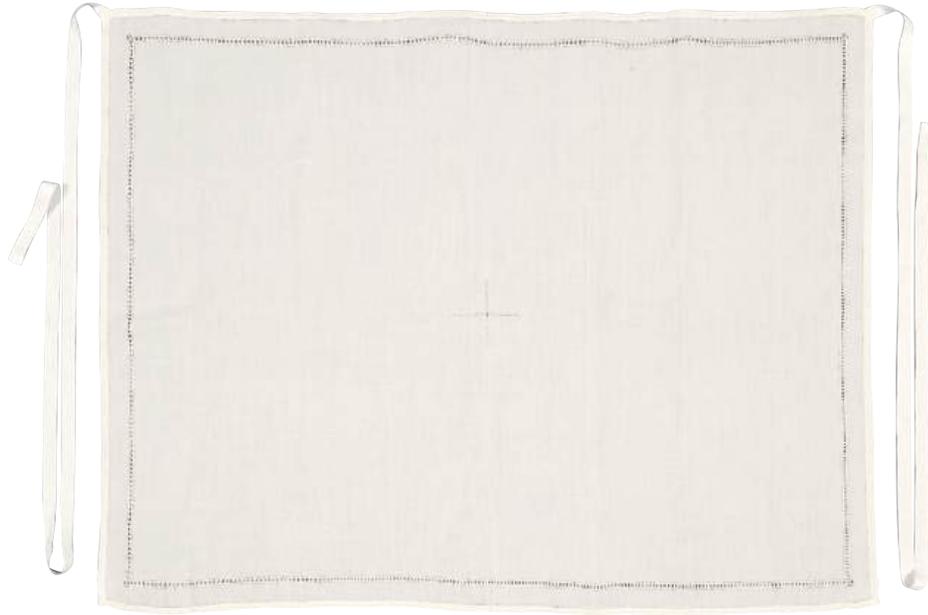
갈색 면소재의 수저집으로 가운데 솔기가 있으며 24.5cm 지점에서 접어 사용하였다.
나무 수저에는 만(卍)자 표시가 되어있다.

143 바루 수건 手巾

Bowl Wiping Cloth

33.5×39cm 겹, 면 20C

쪽물을 연하게 들여 사용했던 바루수건이다.



정중한 의례

엄숙 종교예식 - 천주교

144 개두포 蓋頭布

Amice

61×80cm, 끈 113×1.5cm 홀, 아마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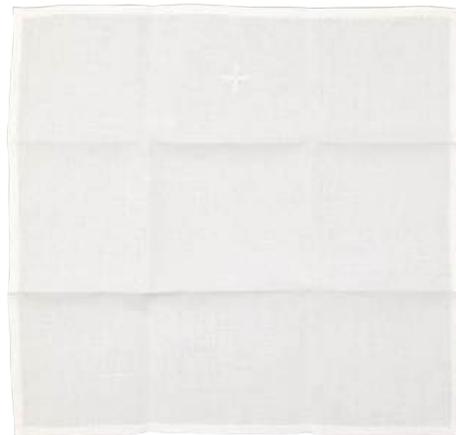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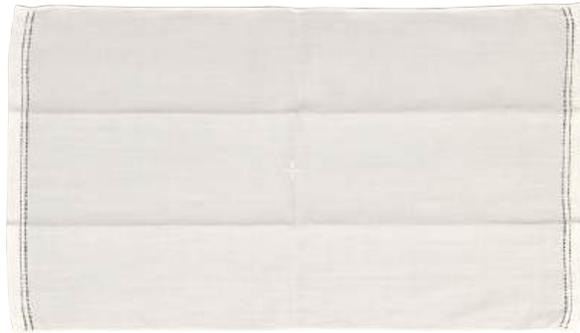
사제가 미사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 천으로 양쪽에 긴 끈이 달려있어 어깨 위로 걸치게 된다. 성직자들이 장의를 입을 때 먼저 개두포를 착용하는데, 개두포는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제는 개두포를 착용하면서 "주님, 제 머리에 투구를 씌우시어 마귀의 공격을 막게 하소서" 라고 한다.



145 어깨보 襟

Humeral Veil
43×247cm 겹, 합섬 20C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모시고 다닐 때 사용하는 보자기이다.
어깨에 걸쳐 손아래까지 내려오며, 성작을 잡을 때 이 보로 감싸 쥘다.
또 성체강복 때에도 성광을 어깨보로 감싸 쥐고 강복해 주신다.
안감 양쪽 끝에 55×17cm 크기의 주머니가 달려 있다.



146 성작보 聖爵褌

Chalice Veil

53×52cm 겹, 명주 20C

성작과 성반을 덮는 보자기이다. 제의와 같은 색상의 옷감으로 만들어졌다.

147 성체포 聖體布

Corporal

46×45cm 홑, 아마 20C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성작이나 성합 밑에 깔아두는 보이다. 한 변의 길이가 50cm인 정사각형의 아마포로 되어있다.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대 위에 펴 놓으며, 미사 중에 성체와 성혈을 담은 성작(聖爵)과 성반(聖盤)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붉은색 성체포는 축일용이다.



148 성작개 聖爵蓋

Pall

18×18cm 겹, 무명 20C

미사 때 성작을 제대에 가져오거나 가져갈 때 성작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성작을 덮는 작은 뚜껑이다. 딱딱한 종이를 흰색의 아마포로 썼다.

149 성체포낭 聖體布囊

Burse

20×20cm 겹, 합섬 20C

성작개와 성체포를 넣는 네모지고 조그만 주머니이다.

성작개와 성체포를 제대로 가져갈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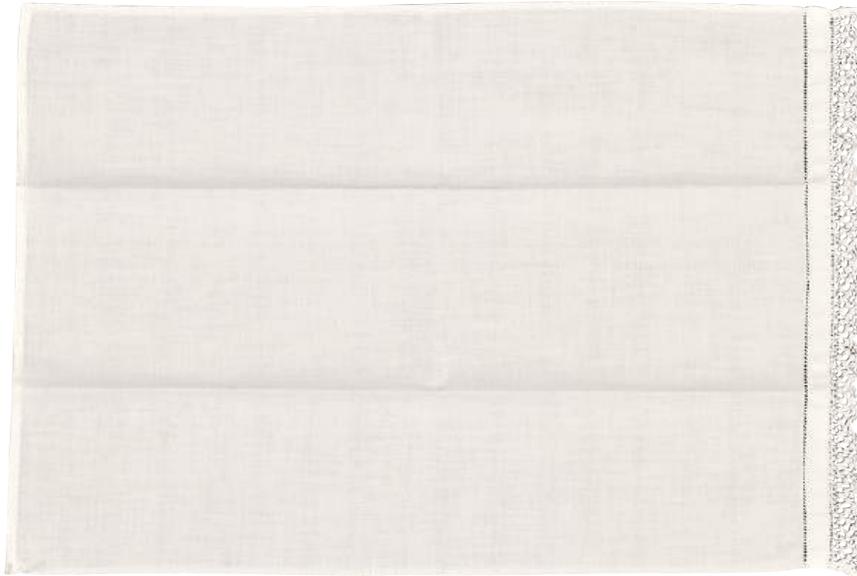
제의와 같은 색 옷감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요즘은 환자 영성체 때 사용한다.

150 제대포 祭臺布

Altar Cloths

24.6×96.5cm 홑, 면 20C

제대 위에 까는 하얀 천으로 보통 아마포나 대마포로 만든다. 백포(白布)는 제대의 품위를 높여주며 순결을 뜻하고 미사성제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낸다.



151 주수수건 酒水手巾

Purificatorium
39×26cm 홑, 아마 20C

미사를 드리는 중에 거룩한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사제가 물로 손가락을 씻은 다음 물기를 닦는 수건이다.



152 미사포 彌撒布

Veil for Mass

60×83cm 홀, 인조견 19C

미사드릴 때 여자 신자가 쓰는 머리쓰개이다. 흰색과 검은색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미사나 축일 때는 흰색, 위령 미사나 장례 미사 때는 검은색을 쓴다.





보 자 기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 요긴한 쓰임새

Bojagi : Its vital use in the cycle of life

김명임 동서문화조형협회 이사

Kim Myung Im Director, Korean Society of East & West culture Forms

머리말

보자기는 오랜 옛날부터 네모난 형질을 사용해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쉽게 「싸는 것」 외에도 「가리는 것」, 「까는 것」, 「덮는 것」과 「덮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가장 간편하고 합리적이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생활 도구이다. 이러한 실용성과 더불어 보자기 자체를 접거나 말아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작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어 오랜 세월, 생활 속에서 가깝고 친근하게 사용되는 긴요한 용품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자기와 같은 네모난 천의 이용은 몸에 감아 의복으로 사용한 그리스(Greece)의 히메이션(himation)¹⁾이나 클라미스(chlamys)²⁾, 이집트(Egypt)의 로인크로스(loincloth)³⁾형의 상티(shenti) 등 더운 지방의 고대의상을 비롯해,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직도 사용하는 종교, 문화의 상징인 차도르(chador)⁴⁾ 외에 필리핀(Philippines)과 동남아시아의 원주민 의상, 동 아프리카의 캄가(kanga)⁵⁾, 멕시코(Mexico)의 레보소(rebozo)⁶⁾, 잉카(Inca)의 판초(poncho), 중국의 탁위(卓圍)⁷⁾, 일본의 후쿠사(ふくさ-袱紗), 또는 후로시기(ふろしき-風呂敷), 부탄의 경전 포(布)인 페레(pere) 등 많은 나라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 생활습관에 따라 의복, 목욕, 의식용의 덮개, 경전의 보, 농작물 수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의식용은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보자기의 격을 한층 높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은 예(禮)와 경(敬)을 중시하는 농경 문화적 특성에 의해 서양과 다른 보자기 문화가 발달하였고, 특히 우리나라는 계층에 관계없이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친숙하게 사용하면서 보자기의 기능성에 한국인의 정서와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독특한 보자기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한국동란 이후, 의식주 전반에 걸친 급속한 서구화는 가구의 역할도 했던 보자기나 휴대용 보자기는 서구식 가구와 핸드백이 대신하면서 그 사용 범위가 축소 소멸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합성수지의 개발로 일회용 물품사용의 증가로 일상에 쉽게 사용하던 보자기는 비닐봉지가 대신

1) 사각형의 큰 천을 몸 전체에 휘감아 입는 겹옷

2) 직사각형의 옷감을 오른쪽 어깨 위에 편으로 묶어 사선으로 흐르게 입는 형태의 옷

3) 윗몸은 드러내고 밑에는 허리를 감싸는 간단한 천

4) 이슬람교의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뒤집어쓰는 네모난 천

5) 동 아프리카 여성이 몸에 걸치는 화려한 무늬의 네모진 천

6) 스페인, 멕시코 여성들이 머리나 어깨에 두르는 사각형의 천

7) 조그만 조각 천에 부처의 모습이나 꽃, 나비, 박쥐 같은 길상 동물들을 수놓아 이어서 의자커버나 탁자 보를 만든 것

하여 환경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이번 경운박물관 보자기 전시회는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사용했던 보자기의 쓰임새를 짚어보며 보자기의 합리적인 기능성과 다양한 표현성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정서를 배우고, 우리의 생활 속에 보자기의 무한한 변신 가능성과 예술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1. 보자기라는 말

머리맡에서 보여주듯 네모난 천(보자기)의 사용은 몸을 감싸 단순한 의복의 역할을 한 것에서 보자기 사용의 시작으로 본다면 옷감의 직조가 가능했던 농경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보자기의 사용이 가능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야국의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탄생 설화에서 비단 「홍보」에 싼 황금 합이 있어 아도간이 절을 하고 합을 여니 큰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아이가 나왔다⁸⁾는 기록으로 보자기는 귀한 것을 싸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옛 문헌에 보자기를 한자어로 「복(復)」, 「복(袱)」, 「보(褌)」, 「보자(褌子)」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復」이나 「袱」은 복(福)과 같은 음으로 복을 싸둔다는 기복신앙(祈福信仰)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자기 사용에 있어서 매듭을 묶어 사용하기보다 물건을 싼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였기에 보자기의 한 귀퉁이나, 서로 대칭되는 모서리에, 또는 세 귀퉁이에 끈을 길고 짧게 달아 보자기를 접어 싸고 끈으로 풀어지지 않게 감아 마무리를 했다. 또 덮는 역할을 하는 「식보」의 경우에도 보자기 중앙에 끈으로 고리나 술을 달아 썼으며, 「함보」나 「폐백보」와 같이 끈을 달지 않고 싸는 경우에는 네 귀에 금전지를 달고 근봉(謹封)으로 띠를 둘러 묶어 매무새를 만들었다.

보자기는 표준어 명칭 외에 각 지방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경기, 충청, 강원도의 중부지방에서는 「보재기」, 「보」, 「보자」, 「보제기」로 전라도는 이외에 「보대기」, 「보투이」, 「보따리」, 「포대기」, 「포재기」로 부르기도 하며, 경상도는 「보재이」, 「보새기」, 「보새끼」, 「뽕재기」, 「바뿌재(제)」, 「밥수건」, 「밥부재」, 「밥뿌재」, 「뽕재이」 등 지방의 억양과 방언에 의해 다르게 불려지고 있다. 이밖에 황해도, 함경도 지방에서는 「보대(褌袋-포대)」라고도 한다.

8) 李相玉 “설화 韓國의 歷史” 1 三國의 風雲 (서울:敎文社.) p47

또 한 가지 경기 일원에서는 보자기로 물건을 싸 놓은 상태를 말할 때 「봇짐」, 이불과 같이 덩어리가 커서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보통이를 붙여 「이불보통이」로 옷이나 패물 또는 잡다한 물건 등 그다지 크지 않아 한 손으로 들거나 안을 수 있는 것은 보따리를 붙여 「옷 보따리」, 「패물 보따리」, 「책 보따리」라고 하며, 보자기에 싸서 이거나 지고 다니며 파는 장사꾼을 「보따리장수」, 「봇짐장수」, 「보부상」이라 부르기도 했다.

보자기의 보(褌)를 풀어보면 아이를 등에 업은 것에 옷의변(裵衣)을 더해서 갓난아이를 싸서 업는 것, 갓난아이를 감싸는 옷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보자기로 알려진 선암사의 고려시대의 탁자보가 「탁의(卓衣)」라고 불리는 사실이 그 예라 하겠다. 또 조선시대에서도 「보자기(褌子器)」로 일컫기 이전에 「보자의(褌子衣)」라고도 불렀던 때가 있는 기록으로 보아 보자기는 갓난아기의 「싸개(보자기)」가 「강보(襁褓)」, 「보자의」, 「보자기(褌子器)」로 싸여지는 물건의 옷을 뜻하며 여기에 큰 보자기로 싸서 과부를 업어 가는 「보쌘보」 역시 옷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자기는 단순히 물건을 싣는 기능 외에 물건을 주고받을 때, 물건을 싸거나 덮어서 보기 좋게 보호하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와 마음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상의 보자기는 물론 의례용, 혼수용이나 종교용 보자기 제작에서 여러 가지 조형적 아름다움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2. 여러 가지 보자기

우리나라 개화 이전에는 신분제도가 뚜렷하여 보자기 사용도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생활 도구로서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용했던 여러 가지 생활 보자기인 서민들의 「민보(民褌)」와 궁중을 중심으로 사용했고 체면과 격식의 틀을 대표하던 「궁보(宮褌)」와 종교 의식용 보자기 「불보(佛褌)」로 나뉜다.

민보는 서민 생활과 정서가 어우러져 무명, 베와 같이 재료나 바느질이 질박하고 소박하다. 색도 염료가 귀하기 때문에 옷감 본래의 색(소색)이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이나 꽃, 열매와 같은 주변의 자연물로 염색하였다. 이렇듯 민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생활보자기가 중심이다.

반면, 「궁보」는 화려한 붉은색이 주로 쓰였으며, 사용 계층의 취향과 격식에 따라 옷감의 재료와 색상이 다양하다. 꾸밈새도 화려하고 세련된 의례용 또는 혼수용 보자기가 대부분이고, 「종교의식용 보자기」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과 정성을 표현하지만, 물건을 덮고, 싸고, 보관한다는 보자기의 주된 기능은 민보와 같다.

보자기는 주로 옷감으로 만들어졌고, 개화 이후 기계직 옷감이 나오기 전까지는 옷감의 폭이 대부분 1자(尺)⁹ 또는 1자반(1尺半)¹⁰이기 때문에 싸려고 하는 용도에 따라 1폭에서 10폭까지 폭을 이어 썼으며 폭 수에 따라서 1폭 보, 2폭 보, 3폭 보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폭 수에 의해 분류하기도 하고 만든 방법에 의해 안감을 대지 않고 가장자리에 단 처리를 한 「홀보(單襪)」, 안감과 겉감의 두 겹으로 된 「겹보(給襪)」, 안감과 겉감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솜보(襠襪)」, 솜을 든 솜보를 직선이나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누빈 「누비보」, 겉감을 콩기름을 입힌 한지로 감싸 이불 훔청같이 단을 두른 「유지보(油紙襪)」, 「식지보(食紙襪)」¹¹⁾, 꽃, 나비, 박쥐 등 여러 가지 길상문, 당초문을 수놓은 「수보(繡襪)」, 여러 가지 형질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조각보」, 「쪽 보자기」, 등으로 나누기도 하며, 그 외 「상용보(常用襪)」, 「혼례보(婚禮襪)」, 「종교의식용보(宗教儀式用襪)」, 「특수용보(特殊用襪)」 등 용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일행 중에 「옷감보」로 싸서 진 등짐, 어깨에 걸쳐 맨 「후리보」, 아낙의 머리에 「보자기」를 덮은 광주리 김득신 「귀시도」 일부

더러는 만든 재료에 따라 「명주보(明紬襪)」, 「사보(紗襪)」, 「면직보(綿織襪)」, 「저보(紵襪-모시보자기)」, 「마보(麻襪-베보자기)」, 「지보(紙襪)」, 「유지보(油紙襪)」로, 보자기 문양에 따라 「운문보(雲紋襪)」, 「용문보(龍紋襪)」, 「화목문보(花木紋襪)」, 「문자문보(文字紋襪)」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 당채로 그린 「당채보(唐彩襪)」, 금박을 찍어 만든 「금박보(金箔襪)」, 보판에 물감을 묻혀 무늬를 찍은 「판보(板襪)」로 나누기도 한다.

3. 삶과 함께하는 보자기

보자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때와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삶과 함께 하였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산모(產母)는 배냇저고리¹²⁾를 만들고 결혼 때 받은 무명 함 끈으로 「강보(襁褓-싸개)」와 기저귀를 만들어 「보자기」에 잘 싸서 두고, 봄 가을에는 「누비 포대기」, 겨울이면 「솜 포대기」를 만들어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마련했다. 갓난아기가 백일이 되면 아기가 건

9) 1자는 33.3cm임으로 보통 1자 폭인 경우 약 35cm가 됨

10) 1자반 폭인 경우 45cm ~ 50cm 가 됨

11) 밥상이나 음식을 덮는 보자기는 모두 식보라 하며, 종이를 덧대거나 유지로 안을 댄 경우 식지보, 유지보라 한다.

12) 예전에는 아이가 무병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현웃이나 동네에서 건강하고 다복한 어른의 속고의를 얻어다가 배냇저고리를 지었다.



「머리수건」을 쓴 수더분한 아낙의 「베보자기」를 덮은 바구니에 담겨 있는 일손을 위한 점심
김홍도 단원풍속화첩 중 「점심」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설기 떡과 수수 경단을 해서 목판에 담아 고운 「식보」, 「유지보」를 덮어 100집에 돌려 나누어 먹었다.

아이가 자라 사내아이면 서당에 보냈는데 서당에 갈 때, 책을 「책보」¹³⁾에 싸서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서당 훈장님은 훈육용 회초리를 「회초리 보」에 싸서 높은 곳에 두었다가 글을 잘 암송하지 못하거나, 떠들고 장난하는 학동(學童)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치기도 하였다.

아이 어머니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위해 점심을 소반에 차려 「식보」¹⁴⁾로 덮어 부뚜막에 놓고, 발이나 논에서 일하는 아버지나 품앗이 일꾼을 위해 오지 그릇이나 작은 함지에 담은 점심밥과 국, 반찬을 광주리나 큰 소쿠리에 담아 「식보」로 덮고 「머리수건」¹⁵⁾을

쓴 머리 위에 이고 일터로 나간다. 또 날씨가 더워지면 밀전병이나 편수를 채반에 넣어놓고 「베보자기(식보)」로 덮어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 달아 놓기도 했다.

아이가 장성해서 글 솜씨를 겨룰 수 있게 되면, 고을에서 실시하는 초시(初試)¹⁶⁾, 향시(鄉試)¹⁷⁾ 또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이때, 갈아 입을 옷과 노잣돈으로 쓸 엽전이나 무명¹⁸⁾을 책과 함께 싸 「괴나리보짐」¹⁹⁾을 어깨에 메고, 간단한 요깃거리로 떡²⁰⁾을 「떡보」에 싸 허리춤에 차고 길을 떠났다.

이때 즈음에 한편으로 겪는 일이 결혼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결혼을 혼인 당사자 뿐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어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인륜대사로 중하게 생각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다해 치러 혼례(婚禮)라 했다. 혼례는 주나라 때부터 육례(六禮)라 하여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예의

13) 서당에서는 책 한 권을 끝내면 책거리라 하여 훈장에게 술과 떡을 대접했는데 개화 후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하루의 수업 교과목이 여럿이 되자 여러 권의 책과 공책을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걸쳐 매었다.

14) 반가 이상의 상류 계층은 3첩 반상, 5첩 반상 등으로 식기에 뚜껑이 있지만 서민은 대접 중지 보시기 등에 뚜껑이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무명 베 등을 이용한 식보, 밥보, 유지보를 사용해 음식물의 보존과 오염을 차단했다.

15)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거나 특히 중부 이상 북부 지방에서는 일할 때뿐만 아니라 가을부터 봄 사이에 방한용으로 사방 1마정도의 헝겊으로 머리에 둘러썼다.

16) 과거의 맨 처음 시험

17) 조선시대에 각도에서 그 도(道) 안의 유생(儒生)에게 보이던 초시

18) 예전에는 물물교환으로 무명이 돈의 가치를 갖고 유통되었다.

19) 먼 길을 떠날 때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자그마한 짐

20) 예전에는 길을 떠나거나 오래두고 먹을 비상식량으로 백설기 떡이나 미숫가루를 만들어 휴대했다.

절차를 갖추어 진행했으나 그 순서가 너무 번거로워 문공주자의 4례(四禮)로 치르는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반화되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혼례 과정에서 보자기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쓰임도 많고 보자기에 정성도 곁들여 사용했다.

쌍방의 부모가 결혼에 합의하면 의혼(議婚)이라 하여 먼저 신랑 측에서 신랑의 사주(四柱)를 간지에 써서 오른쪽으로 8겹 접어 봉하지 않은 흰 봉투에 넣는다. 이것을 가른 싸리가지에 끼운 뒤 청홍실로 매듭지지 않게 묶어, 네 귀에 금전지를 단 홍(겉), 청(속)의 겹으로 된 「사주보」에 싸서 간지에 근봉(謹封)이라 쓴 띠를 두른 다음, 함에 넣어 붉은색의 「사주함보」로 싸서 신부 집에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소반에 사주함을 받아 결혼을 정한 예를 하고 신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혼 날짜를 정한 후, 간지에 써서 사주보와 같은 「청홍 보자기」에 싸서 함에 넣어 신랑 집으로 보낸다. 이를 연길(涓吉)이라 한다.

요사이 택일을 받은 신랑 집은 요셋말로 함이라 하여 납채(納采-혼서지)와 납폐(納幣)를 합하여 절차를 줄여 행한다. 납폐에서 폐는 채단을 말하는 것으로 함 속에 「다홍색 겹보」인 「함속보」를 넣고, 중앙의 황낭(黃囊)에는 씨 박힌 면화 몇 개, 녹색(조), 홍색(팥), 백색(쌀, 소금), 흑색(검은콩)의 오방낭(五方囊)²¹⁾ 또는 마분향(香)을 네 귀에 넣고, 청색 치마 감은 홍지(紅紙)에 싸 청색실로 동심결을 맺고, 홍색 치마 감은 청지(靑紙)에 싸 홍색실로 동심결을 맨 것을 포개서 넣고 「속보」로 덮는다. 그 위에 납채로 두꺼운 간지에 신랑 아버지가 써서 신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금전지를 단 「검은색 비단 겹보」인 「혼서지보(婚書紙褙)」에 싸서 근봉을 두른 후 올려놓고 뚜껑을 덮고 자물쇠는 채우지 않고 끼워 놓은 채, 홍색 두 겹에 금전지를 달아서 만든 「함겉보」로 싰 뒤 매지 않고 위에서 네 귀를 모아 근봉을 끼운다. 무명 함질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지도록 해서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 팔고물로 두 켠을 얹힌 봉치떡 시루를 소반에 놓고 그 위에 「붉은 보」를 덮고 함을 놓았다가 신부 집에 보낸다.

신부 집에서는 봉치떡을 써서 소반에 놓고 위에 「붉은 보」를 덮은 위에 함을 받는다. 이때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아비라 하는데 아들 딸 낳고 내외가 함께 사는 사람으로 홍 단령을 입고, 함을 지며 서너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간다.

혼례 당일에는 전안례(奠雁禮)²²⁾라 하여 신랑이 나무기러기를 「기러기보」에 싸서 들고 들어가 신부 방 앞 전안상에 놓고 장모에게 전하여 해로할 것을 알린 후 「면포」로 얼굴을 가리고 혼례 청에 나가 혼례를 치른 다음 삼일을 머물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간다. 이를 친영(親迎)이라 하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다.

21) 주머니 속에 넣는 물건은 변하지 않고 자손이 많을 것을 바라는 뜻으로 곡식을 주로 쓰지만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2) 기러기나 원앙은 짝을 잃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하여 금실 좋은 부부나 해로하는 부부의 상징으로 여겼다.

신부는 신랑 집에 가면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치루는데 이때 신부 집에서는 대추²³⁾와 편포²⁴⁾, 또는 포를 진분홍 겉에 연분홍 안을 대거나 다홍 안팎으로 금전지를 단 「속보」²⁵⁾로 싸서 네 귀를 합해 근봉을 끼운 뒤, 목판에 올려놓고 상보로도 사용하는 「홍겉보」²⁶⁾로 겉을 싸서 네 귀를 모아 근봉으로 묶는다. 이때 신부 집에서 신랑상의 음식을 교자²⁷⁾에 담아 함께 보낸다.

시대에서는 현구고례, 상호례(相互禮)가 끝나면 시어머니는 신부를 대청에 앉히고 관례(冠禮)²⁸⁾를 베풀어 쪽을 찌게 하며, 패물을 「패물보」에 싸서 내린다. 그러나 요사이의 혼례 때 주로 「청홍 겉보」를 사용한다.

폐백(幣帛)은 비단이라는 의미로 신부가 첫나들이로 친정에 갔다가 시집에 돌아 올 때, 신랑 옷은 「옷보」에 시부모님의 예물²⁹⁾은 「예물보」에 싸서 보내는 것이며, 이때 신부는 장농과 신부가 입을 옷을 「옷보」에 싸고 버선은 「버선보」에 싸서 농에 넣어 가져가며, 겉은 옷칠로 붉고 안은 검은 색으로 된 함지박에 늦반상기를 담아 자주 안팎 「솜보자기」에, 경대는 「다홍 겉보」에, 대야에 늦요강을 담아 「분홍 겉보」로 싰다. 시부모님의 음식은 목판에 담아 유지 「식보」를 덮고 「목판보」에 싸서 큰 하님들이 이고 갔다. 시부모님은 하님들에게 수고했다고 행하채(行下債)³⁰⁾로 상금을 주었다. 이러한 절차가 근래에는 현구고례와 폐백이 합쳐져서 폐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예전에는 엽전이 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돈은 주머니에 넣어 사용했으며 사돈간에 혼례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결례에 속했다. 돈을 사용하는 상인의 경우에도 적은 돈은 주머니에 넣었고 양이 늘면 돈궤를 사용했으며, 신용을 주고받는 객주나 육주비전의 큰 물상은 어음을 이용했다. 개화 이후 지폐가 발행되고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경조사에는 봉투에 부조금(扶助金)을 보내는 풍습이 생겼으며, 혼례에 「돈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전쟁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질 만능주의와 쉽고 편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진 영향이다.

결혼한 새댁은 방안에 농이나 반다지를 놓고 옷은 「옷보」에 싸서 위아래 옷을 구분하여 넣었으며, 서답³¹⁾은 「서답보」에 싸서 농 아래 깊숙이 넣었다. 농이나 반다지 위의 이불은 「이불보」로 덮

23) 시부님을 상징하며 자손을 받는다는 뜻

24) 시모님의 몸을 상징하며 우둔살이나 정육 10근을 곱게 다져 소금, 후추, 참기를 등 양념에 채워 두 덩어리를 판판하게 만들어 잣소금을 뿌려 찜피, 홍피를 감아 목판에 놓고 유지를 덮어 속보로 싰다.

25) 속보는 사방 70cm

26) 홍 겉보는 사방 100cm

27) 큰 가마처럼 생겨 앞뒤로 사람이 들게 되었음

28) 성인식으로 쪽을 찌게 됨

29) 경인 지방에서는 시부모님 선물로 남자나 노인은 귀주머니, 시누이와 여자는 두루주머니를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으며 그 외에 무명 몇 필, 버선은 죽으로 만들어 가서 혼례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0) 주인이 아랫사람에게 수고비로 금품을 주는 것

31) 개집이라고도 하는 여자의 생리대

어 쌓아 두고, 경대는 「경대보」를 씌워 창문 앞에 두고, 반디그릇은 「반디그릇보」로 덮어 화로 옆에 두었다. 빨래를 손질할 때 쓰는 「빨래보」는 대청마루 다듬잇돌 위에 개켜놓고, 햇대에는 남편의 나들이 옷인 도포나 두루마기를 걸고 「햇대보」로 가려 놓았으며, 겨울에는 밥을 담은 함을 「바리보」³²⁾로 덮어 따뜻한 아랫목 보료 밑에 묻어두었다. 여름에는 대나무밭이나 「모시밭」로 시원함을, 겨울에는 「방장」을 쳐 문 사이의 찬바람을 막기도 했다.

생활과 함께 쓰여지던 보자기는 결국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마무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늙어 병이 들면 약을 달여 「약보」로 짜서 복용했으며, 임종을 맞으면 자손들은 시신의 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흠이불 같은 「큰보자기」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둔다. 염습해서 수의를 입힐 때 「명목」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는 「엄두」, 손을 가리는 「악수」로 시신을 잘 보살핀 후, 「소렴금」³³⁾으로 시신을 싸서 아래·위·중간의 차례로 7번 묶는다. 다음에 칠성판에 옮겨 「대렴금」³⁴⁾으로 싸서 여민 다음 관에 「지요」³⁵⁾를 깔고 「천금」³⁶⁾으로 덮어 입관한다. 입관을 마치면 관 위에 「관보」를 덮고 그 위에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쓴다. 그리고 영좌(靈座)³⁷⁾의 오른쪽으로 붉은 비단 한 폭에 「명정」을 써서 병풍에 걸쳐 늘어뜨렸으며, 제사 때 쓰는 제기는 「제기보」(祭器褌)에 싸서 함에 넣어 보관했다.

이처럼 자갈한 소품에서 주거용까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의식주의 한 부분으로 쓰여진 보자기는 마을의 기우제를 지낼 때 제상에 덮던 「기우제보」, 단오 때 단오 음식을 담은 「목관보」로, 산대놀이에서는 각종 탈 뒤에 달아 얼굴을 가리던 「탈보」, 장을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로, 보부상의 붓짐을 쌀 때의 「옷감보」, 문서와 물건을 전할 때 사용하던 「전대보」³⁸⁾, 여행할 때 간단하게 잡다한 물건을 싸서 어깨나 허리에 둘러 걸치던 「후리보」, 편지를 넣어 은밀하게 전하



장터에서 만나 수다 떠는 이낙의 함지에 덮인 「보자기」 밑으로 삐죽이 내민 찬거리 생선

32) 여성용 밥그릇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밥주발을 바리라고도 한다.
 33) 시신을 싸는 속 이불
 34) 시신을 싸는 큰 이불
 35) 시신에 까는 요
 36) 시신에게 덮는 이불
 37) 입관한 시신을 모셔 놓은 자리
 38) 전대보는 은밀히 전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허리에 차는 경우가 많다.



머리에 인 음식 「보따리」가 무겁기보다
단오 나들이가 더 신이 난 하님
신윤복의 「심계유목도(深溪遊沐圖)」중 일부

던 「간찰보」 등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집 바깥까지 그 쓰임의 영역은 넓고 다양하게 서민의 삶과 함께했다.

4. 궁중의 보자기

궁중의 보자기도 서민들과 같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사용했지만 서민들처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자기를 만들어 사용하기보다 궁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보자기의 사용에서도 형식과 규범이 적용되었다. 우선 보자기의 제작 재료도 여러 종류의 비단이 사용됐고, 우리나라 서민들이 자연에서 채취해 사용했던 옷감 중에서도 마(麻) 종류인 삼베보다 저포(苧布)인 모시를 주로 사용했다.

궁중은 위로 왕을 비롯해서 왕대비, 왕비, 왕세자, 세자빈, 후궁 등의 서열과 직책의 고하(高下)가 뚜렷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서열과 의전 형식에 따라 보자기의 크기와 색, 재료 사용의 규범이 정해져 있었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궁중 일가를 위한 의복은 「붉은 홀보자기」에 싸서 붉은 함에 넣어 보관했음은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이 되기 전까지 왕실의 색이 자색이었고, 그 당시 자색이나 황색은 일반 서민은 물론 사대부에서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 환경 때문에 각각 1년 동안 소용되는 물건을 진상하는 때인 탄일(誕日)과 정조(正朝)³⁹, 중삼(重三)⁴⁰, 단오(端午), 추석, 동지(冬至), 매삭(每朔)⁴¹, 간삭(間朔)⁴², 춘추양등(春秋兩等), 연례(年例) 등 계절에 따른 의복의 보관에 많은 보자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왕의 두면(頭冕-면류관)은 4폭의 반홍정주(礮紅鼎紬-자색 명주의 일종) 「숨보자기」에 싸고 익선관(翼善冠)은 3폭의 「반홍정주(礮紅鼎紬)숨보자기」에 싸며, 세자의 면류관은 4폭의 「반홍정주(礮紅鼎紬)겹보자기」에 싸서 각각 반주홍상함(礮朱紅常函-붉은 칠한 함)에 넣었다. 왕을 위시해 모든 사람의 의복은 각 사람의 옷의 부피에 따라 2폭에서 4폭의 「반홍정주 홀보자기」에 싸서 반주홍대상함에 넣었고, 여름에는 명주 대신 「저포(모시) 보자기」로 대신했다. 신발은 크기에 따라 구두(靴-사슴가죽)는 3폭, 삼혜(鞞鞋-곰가죽), 초혜(草鞋), 온혜(溫鞋-곰가죽)는

39) 정월 → 설

40) 삼진날 → 음력 삼월 삼일

41) 매달 초하루

42) 매달 보름

2폭의 「반홍정주홀보자기」에 써서 반주홍상함에 넣었다.

또 은수저는 1폭 「보자기」로, 오봉산 병풍(五峯山屏風)과 십첩서병풍(十貼書屏風)은 7폭의 청색면 「갑보(누비보자기)」로 싸두었고, 한쪽 귀에 짧고 긴 끈이 달린 홍색과 황색의 「노리개 겹보」, 패물을 싸기 위한 「자수 패물보」, 왕의 잔치상에 깔던 「진찬보」, 「안상보」, 「식보」에서는 걸감의 가운데에 둥근 유지를 대고 끈을 단 「유대식지보」와 목판을 덮는데 사용한 끈이 없는 「무대식지보」가 있다. 그 외 조상의 영정을 싸는 「내보」와 이것을 보관하는 함을 싸는 「외보」인 「영정봉안보(影幀奉安褙)」, 모시에 문양을 그려 넣어 꿰나 함의 외부를 덮어 장식하거나 이불·요 등 침구류를 싸두었던 「당채보」도 있다. 개화 이후에는 지금의 상보와 같은 「식탁보」를 사용했음을 안중식의 「조일 통상조약 연희도」에서 볼 수 있다.



「너울」을 쓴 기행 나인

궁중의 혼례는 일반 서민의 혼례와 과정은 비슷하지만 나라의 행사로 그 절차마다 행사의식과 규범이 까다롭고 엄격했다. 왕비나 세자빈의 경우 금혼령을 내려 혼기의 규수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여 초간(初揀), 재간(再揀), 삼간(三諫)으로 세 번의 면접으로 신부감을 정하면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예의절차를 갖추어 진행하면서, 친영 전의 모든 절차마다 신부 집에 보내는 교문지(教文識)⁴³를 3폭의 「붉은 생초 겹보자기」로 싸서 검은 칠을 한 함에 넣고 6폭의 「붉은 명주 홀보자기」로 싸서 산 기러기를 붉은 명주로 묶어 2폭의 「붉은 명주 홀보자기」로 싸서 6폭의 「붉은 명주 상보」를 덮은 당주홍칠안상(唐朱紅漆案床) 위에 두었다가 보내면, 왕비에 간택된 신부 집에서 받은 다음 왕의 교명문에 대한 답을 올리는 답전문지(答箋文紙)⁴⁴를 4폭의 「붉은 명주 홀보자기」에 써서 흑칠함에 넣어 4폭의 「붉은 명주 홀보자기」로 싸서 궁으로 보낸다.

서민들과 달리 친영 전에 왕비나 세자빈에 봉한다는 책비례(冊妃禮)를 하는데 이때에도 교명문(教命文)을 1 폭반의 「다홍색 겹보자기」에 써서 왜주홍칠궤에 넣고, 6폭 「붉은 명주 홀보자기」로 싸고, 옥책(玉冊)⁴⁵은 「다홍방사주(大紅方絲紬) 자물쇠 겹보자기」에 써서 화금주홍칠(畫

43) 왕이 신부 집에 보내는 글

44) 신부 집에서 왕의 교명문에 대한 답을 올리는 글

45) 왕비나 세자빈의 존호를 올릴 때 송덕문을 옥에 새겨놓은 간책

金朱紅漆)속함에 넣고 「자주색 생초 홀보자기」에 싸서 검은 칠한 겉케에 넣어 5폭 「붉은 생초 홀보자기」로 쓴다. 그 외 명복⁴⁶⁾을 비롯해 금보, 주통 등 의식에 필요한 물건은 「붉은색 보자기」에 싸고 「상보」를 덮은 붉은색 독보상(讀寶床)에 놓는다.

왕이나 세자가 신부를 맞으려 친영을 행할 때 산 기러기를 2폭 「붉은 명주 홀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가며, 4 인의 상궁·시녀·기행나인·한 명의 유모가 「너울」⁴⁷⁾을 쓰고 배행한다. 가례 때 왕비나 세자빈은 적의(翟衣)⁴⁸⁾ 위에 「면사(面紗)」⁴⁹⁾를 쓰고, 숙의는 간택 때 「너울」을 쓴다. 이외에 비단, 홍초를 포함해서 모든 예물들은 「붉은 명주 겹보자기」에 싸서 흑칠이나 홍칠 함에 넣고 「붉은 명주 보자기」를 사용했다. 왕을 위시해서 궁중 일가는 의식에 따른 여러 종류의 의복과 관모⁵⁰⁾, 패슬⁵¹⁾ 등을 착용하는 규범이 있기에 수많은 「붉은 보자기」를 사용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종교 의식용 보자기

보자기는 생활용품으로서만 아니라 민간의 기복신앙과 더불어 종교 의식에서도 종교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이 결부되어 사용했다. 유교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생활종교로 사회규범의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된 의식인 관혼상제에서 보자기는 예를 갖추는 절차로서 이용되었다.

유교에서 예의 표현인 보자기는 불교에서는 부처에 대한 경외심과 불심(佛心)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보자기의 사용도 불가의 수행이라는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사시(巳時-오전 9시~11시)에 스님이 예불할 때 차려놓는 밥이나 쌀에 「마지보(摩旨禡-사시보)」를 덮었고, 불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릴 때 음식과 과일을 차려 놓는데 이때 정갈한 흰색 보자기인 「공양보(供養禡)」를 덮는다. 스님이 공양 받던 바리때⁵²⁾는 「바루보」에 싸서 시렁위에 두었다가 길을 떠날 때는 바람에 넣어 등에 지고 다녔다.

예불을 드릴 때 불교 경전을 싸두었던 「경전보(經典禡)」, 주지스님이 예불할 때 두르는 「가사」, 설법할 때 탁자(경상-經床)에 덮던 「탁자보(탁의-장보)」가 있다. 불상을 봉안할 때 불상 안에 넣은 후령통은 청(靑-동), 홍(紅-남), 황(黃-중앙), 백(白-서), 흑(黑-북)을 상징하는 오색실, 오보병(五寶瓶)⁵³⁾, 오색구슬 등을 넣어 사방에 주사(朱砂)로 방위를 가리키는 범서를 써놓은

46) 왕, 왕비, 세자빈의 관복

47) 나인들이 나들이나 왕이 거동할 때 머리에 쓰는 가리개

48) 왕비나 세자빈의 정복으로 비단 바탕에 꿩을 수놓은 옷

49) 신부가 처음 신랑 집 에 갈 때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 쓰던 얇은 사로 궁중에서는 홍사로 만들었다. 면사포라 고도 한다.

50) 직책과 의복에 따른 모자

51) 조복, 제복을 입을 때 가슴에 늘어 무릎을 가리는 형질

5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리는 여성용 밥그릇이며 스님의 밥그릇은 바리때라 한다.

53) 다섯 방위를 나타내는 오색천에 오색실로 감은 것

황초폭자(黃綯幅子)로 썼다.

천주교 예식용으로는 「제대포」, 「성체포」, 「개두포」, 「성작보」 등이 있고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미사보」가 있다. 기독교 예식용으로는 「강대상보」, 「성찬보」, 예배 때 목에 걸치는 「제대」가 있다.

6. 보자기 싸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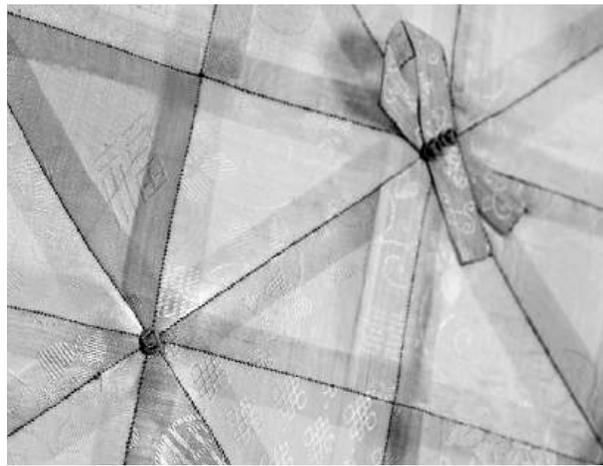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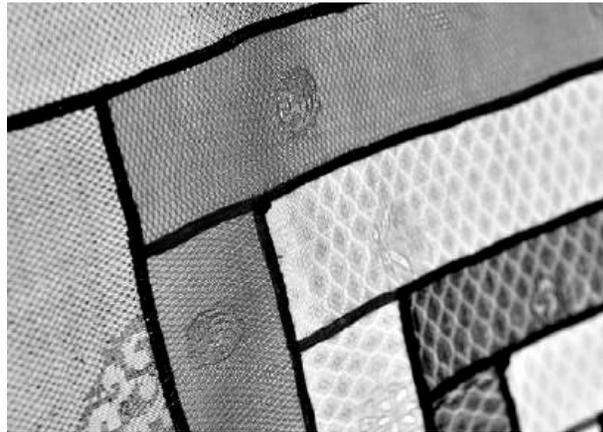
우리나라 보자기 사용에서 특징은 보자기가 복을 쓴다는 기복신앙과 함께 우리 민족 감성의 한 가닥인 맺은 것은 풀어야 한다는 한(恨)의 정서가 합쳐져 보자기로 쌀 때 굳게 매듭을 매지 않고 고름 매듭 매서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끈이 없는 보자기는 「상보」, 「목판보」, 「식보」와 같이 덮어서 많이 사용했으며, 책이나 작은 함, 껌을 싸던 「책보」, 「함보」도 이에 속한다. 이 보자기는 펼친 가운데 물건을 놓고 한 귀로 덮고 양옆의 자락으로 덮은 위에 포개서 엮은 다음 남은 한 귀로 덮어 감싼다. 큰 홀 보자기에 옷이나 물건을 쌀 때는 마주보는 두 귀를 잡아 고름 묶듯이 묶은 다음, 나머지 마주한 두 귀로 고름 같이 매준다. 또는 마주보는 두 귀를 물건을 감싸듯 말아 싸고 나머지 두 귀를 잡아 고름 매듭 묶어주기도 한다.

보자기에서 끈의 길이는 한쪽 술기의 길이보다 길게 하는데, 끈이 한 귀에 달린 경우 마주보는 귀를 덮어 싸고 덮은 귀의 양 옆을 접어 포개 덮고 끈 달린 귀를 덮어 끈으로 감는다. 남은 끈을 감은 끈 사이에 끼워 넣거나 감은 끈에 한번 감아 고름 묶음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끈이 달린 보자기로는 작은 패물이나 장식물을 싸던 「패물 수보」, 「버선본보」 등이 있다.

「수저보」, 「노리개보」등에서는 끈이 마주보는 두 귀에 달렸는데 이런 경우 끈이 없는 두 귀를 포개 감싼 다음 끈 달린 두 귀를 서로 어긋맞게 끈을 돌려 감아 고름 묶음으로 묶는다.

끈이 세 귀에 달린 보자기는 크기가 큰 보자기로 예단 옷감이나, 보부상들이 피륙을 싸던 「옷감보」, 「괴나리봇짐」으로 쓰였으며 끈이 없는 귀를 먼저 덮어 싸고 두 귀의 끈으로 마주 묶은 다음 제일 긴 나머지 끈으로 감아 여민다. 괴나리봇짐의 경우에는 끈이 없는 귀로 감아 싸고 마주한 쪽의 긴 끈으로 덮어 감은 후, 양 귀의 끈을 어긋맞게 돌려 감아 묶은 다음 긴 끈의 남은 자락을 감은 끈 사이에 돌려 감아 끼워 마무리한다.





크기가 큰 물건을 쌀 때는 네 귀에 끈을 달아 쓰기도 했는데 이불을 짜던 「이불보」, 큰 「함보」로 서로 마주한 끈을 고름 묶음으로 묶어 마무리했으며, 또 네 귀에 단 끈이 매는 것보다 장식적인 역할을 하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7. 보자기 감의 아름다움

우리나라 보자기는 보자기를 만든 형질의 질감과 광택, 문양이 다양하다. 면화실로 짠 형질도 무명, 광목(廣木), 생목(生木) 또는 당목(唐木), 옥양목(玉洋木-옥당목), 옥양사(玉洋紗-면아사), 소창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베나 모시의 경우에도 옷감의 두께나 올의 굵기와 짜임새가 다른 북포, 올베, 삼베, 안동포, 생모시, 모시, 세모시 등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비단 종류에는 옷감의 짜임새에 따라 단(緞), 주(紬), 능(綾), 사(紗), 라(羅)로 나뉜다. 주(紬)는 평직으로 짜서 바닥이 울울이 살아있는 정주, 토주, 명주, 짜임새가 매끈한 삼팔주로 보자기가 소박하고 깔끔하다. 반면 사(紗)와 라(羅)는 항라(亢羅), 생항라(生亢羅), 순인(純緞) 등 주로 의복과 사직으로 짰다. 「홀 보자기」일 때는 투명하고 상큼함으로, 「겹보자기」로 만든 것은 앞 뒤 감이 어우러져 아른거리며 앞 뒤 색이 다를 때 두 색이 겹쳐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단(緞)이나 능(綾)의 경우 수자직이나 능직으로 짠다. 옷감의 광택이 달라지고 무늬를 넣지 않은 공단(貢緞)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문양을 넣어 짜서 법단(法緞), 모본단(模本緞), 운문단(雲紋緞), 수복문단(壽福紋緞), 도류불수단(桃榴佛手緞), 용문단(龍紋緞), 화목문단(花木紋緞), 문자문단(文字紋緞) 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다. 보자기를 만들었을 때, 옷감 자체의 무늬로 은은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다. 사(紗)는 갑사(甲紗), 숙고사(熟庫紗), 생고사(生庫紗), 은조사, 진주사(縝紬紗) 등 사직이며 씨실과 날실의 굵기의 차이와 올의 성기고 치밀함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나타낸다. 「홀 보자기」는 투명한 무늬로, 「겹 보자기」는 뒤에 댄 안감의 색에 따라 두 가지 색이 어우러진 독특한 아름다운 무늬를 나타낸다.

이렇듯 옷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늬는 「쪽보자기(조각보)」의 경우 형질 조각마다 각기 다른 문양이 어우러져 색의 대비와 함께 우리나라 보자기만의 독특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장식적이고 화려한 「수보(繡褌)」는 혼례용, 회갑음 등 길사에 주로 쓰였으며, 수의 문양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예와 정성을 담아 십장생(十長生), 모란, 봉황, 나비, 화조 외에 수화문(樹

花紋)으로 민간 신앙적 요소를 단순하게 표현해서 현대적이고 기하학적 멋을 갖고 있다.

8. 이웃나라의 보자기 옛보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 속에서 보자기 사용을 많이 하는 일본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 선물을 증정할 때, 정식으로 격식을 차리기보다 간단하게 약식으로 선물을 완전히 싸지 않고 반쯤 덮거나 가리는 작은 보자기 「후쿠사(ふくさ-袱紗, 服紗, 帛紗)」, 무



로마치 시대에 심신을 청결하게 하는 목욕재계행사에서 쇼군(將軍)의 성이나 사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목욕탕에 초대된 다이묘(大名)⁵⁴⁾들이 한꺼번에 목욕할때 자신들의 의복이 바뀌지 않도록 자신들의 가문 문장을 붙인 보자기로 옷을 싸두었던 일로부터 사용이 시작됐다는 「후로시(ふろしき-風呂敷)로 대별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다이묘나 부유한 상인들이 사용하던 비단으로 만든 「후쿠사」가 에도(江戸-동경) 시대 말기에는 일반 상인과 농민들에게 널리 퍼져 사치금령이 선포 되었고, 이로 인해 비단을 사용하던 「후쿠사」는 목면(木綿)으로 바뀌었다. 메이지(明治) 중기에 들어 물건을 봉헌하는 「후쿠사」나 이에 답례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또 법률로 일반 서민도 이름과 성을 갖고 가문의 상징적인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문장을 넣은 「후쿠사」를 일반 서민들도 널리 사용하게 됐다.

탄생·성인식·혼례·회갑·고회·미수·관직에 올랐을때와 같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계절에 따른 인사·액막음·장례와 같은 경조사에 선물을 보낼 때, 검은 칠한 사각 쟁반에 선물한 물건을 놓고 각각에 맞는 수를 놓거나 자신의 가문 문장을 찍은 작은 보자기 「후쿠사」로 덮어서 보낸다.

옷을 구별하기 위해 싸던 「후로시기」가 면(棉)의 사용과 교토(京都) 상인들이 자기 상점의 물건을 상표를 크게 염색한 「후로시기」에 싸서 에도(江戸)에 보내면 에도까지 가는 동안 지나가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상점의 상표가 회자되어 상점이 번창해졌다. 이러자 상인들이 너도나도 상표를 찍은 「후로시기」를 사용하게 됐고, 가문의 문장을 찍은 「후쿠사」의 구실을 상점의 보자기도 함께 하면서 면 보자기인 「후로시기」가 합해져 이제는 싸고 덮는 모든 보자기를 일반적으로

54) 넓은 영지를 가진 무사. 봉록이 1만 석 이상인 무사집안

「후로시기」라 부르게 되었으며, 일본에서의 보자기는 깨끗한 것을 재난이나 더러움으로부터 가리고 숨기고, 감싸고, 지키고, 나쁜 것을 외부로 퍼뜨리지 못하게 덮고 두르고 봉해 둔다는 주술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일본 보자기는 비단의 경우 명주, 지리멘(ちりめん-縮緬)⁵⁵⁾과 목면(木綿)을 이용해 홀치기염⁵⁶⁾, 납방염⁵⁷⁾, 호방염⁵⁸⁾을 이용하거나 인쇄에 의한 염색법을 사용하여 보자기에 무늬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옷감 자체의 무늬보다 보자기의 문양과 색채가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강하다.

보자기의 사용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감싸서 마무리를 하기도 하지만 물건의 운반을 위한 보자기에서는 마주한 두 귀를 각각 단단히 묶어 마무리하며, 다른 방법은 마주한 두 귀를 굳게 묶은 다음 나머지 두 귀를 매듭지게 묶어 목에 걸거나 양 어깨에 걸쳐 둘러 감는다. 또 하나 물건을 한 쪽 귀에서부터 둘둘 감은 다음, 나머지 마주한 두 귀를 당차게 묶어 한 쪽 어깨에 걸쳐 등에 지기도 하며, 이렇게 감은 보자기를 허리에 감아 묶기도 했다.

맺음말

보자기는 개폐가 쉽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포장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생활 도구로서 사람의 삶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하던 물건이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쓰여지던 보자기는 한국동란의 격변기를 지나고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의식주 전반에 걸친 서구화로 평면의 한복이 수용하던 옷보자기는 입체적인 옷장으로, 이불보는 이불장과 침대가 대신하게 되었다. 특히 재래시장보다 현대적인 백화점과 편의점이 활성화 하면서, 이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인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쓰던 보자기는 편리하게 넣어주는 백화점용 포장 봉투와 비닐 봉투로 대체되어 혼례 때와 명절의 세찬용 물건을 싸는 상점용 보자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상점의 보자기는 합섬을 주로 사용하여 대부분 상호나 광고용 글을 크게 인쇄하기 때문에 형질의 질이 낮고 시각적으로 조악해서 보자기의 재활용이나 선물용 포장으로 다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근자에는 간편하고 다양한 종이를 선물 포장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는 한번 구김이 가면 자국이 나고 잘 찢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어 자원의 낭비까지 초래하게 된다.

현대의 우리는 크고 작은 기념일과 일상 속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며 그에 따라 선물의 기회도 많아 선물 포장에 대해 마음을 쓰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전통의 보자기가 갖고 있는 보자기감

55) 바탕이 쪼글쪼글한 비단

56) 옷감을 잡아 실로 감아 무늬를 만드는 염색법

57) 밀납이나 파라핀을 녹여 무늬를 그려서 하는 염색법

58) 풀을 방염제로 사용하여 붓, 콘을 이용해 그리거나 형지를 조각하여 밀기, 염료를 섞은 풀로 날염하는 염색법

의 아름답고 다양한 문양과 색채 배열에 의한 구성미는 현대적이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단순한 형태의 보자기로 선조들이 의식주 전반에 걸쳐 두름성있게 사용한 생활의 지혜와 감 자체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려 재조합하고 창조한 미적 감각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생활 속에 살려낼 때, 실용성 안에 마음을 담아내는 포장용기로서 보자기의 변신 가능성은 무한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高福男, 「韓國傳統 服式史研究」 서울:一朝閣, 1993.
2. 久保村正高, 「京ふろしき」 東京:SUIKO BOOKS.
3. 국립문화연구원, 「국역 嘉禮圖鑑儀軌」.
4.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미」 서울:통천문화사 1988.
5.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세계」 서울:고려원 1995.
6. 민중서림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민중서림 2004.
7.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경춘사 1993.
8. 森田知都子, 「心つつむ ふろしきの美」 東京:産業新聞社 2006.
9. 수덕사 근역성보관, 「韓國의 佛腹藏」 충남:수덕사근역성보관 2004.
10.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 자수박물관, 「실의 비밀」 서울:숙명여자대학교 2004.
11. 여성동아 「자세한 冠婚喪祭」 서울:여성동아사 1978.
12. 윤서석 외 59명, 「가정백과」 서울:삼중당 1965.
13. 이동주, 「韓國 繪畫小史」 서울:범우사 1996.
14. 정영모, 「사계절의 생활풍속」 서울:보림출판사 2004.
15. 竹村昭彦 監修 「袱紗 風呂敷」 東京:東京美術 2006.
16. 한국생활사 박물관 편찬위원회, 「조선 생활관 2」 서울:사계절 2004.
17. 허동화, 「옛 보자기」 서울:한국자수박물관 1989.
18. 한선주, 「한국과 일본보자기의 문화사업적 비교」 한국공예논총 2002년.
19. NAVER 백과사전

Foreword

From early on, Korean *bojagi* served as an essential tool that made everyday life more convenient and functional. It was foremostly a wrapping cloth that facilitated transportation and safekeeping of things, but its functional versatility extended its usage to that as a veil, mat, wiping cloth, or cover as well. One could freely adjust its size by folding or rolling it up to make storage effortless, a use that attests to its place as an intimate object in the household.

A square-or rectangular cloth, one like the *bojagi*, has found utility in numerous countries to meet the needs of their diverse customs, religions, and cultures. Ancient costumes such as the Greek *himation* or *chlamys* and the Egyptian *shenti*, the *chador* that represents the religious and cultural world of the Islamic tradition, various tribal clothes of Southeast Asia and East Africa, the Mexican *rebozo* and the *poncho* of the Inca civilization, the Chinese table mat for Buddhist scripture, the Japanese *fukusa* and *furoshiki*, and the *pere*, Bhutan's wrapping cloth for the holy scriptures, are all examples of this. Among its various usages — as clothing, bath covering, wrapping for rites and religious canons, and cloth for harvest crops — it was in the ritual usage that *bojagi* came in a particularly exquisite kind and assumed a heightened status.

In Asia, where agrarian culture emphasized propriety and respect, a *bojagi* culture quite distinct from that of the West has emerged. In Korea, people of all classes utilized the *bojagi* in their daily lives, and eventually produced a unique *bojagi* culture that fused practicality with a sense of aesthetics. However, with the advent of rapid Westernization during the post-Korean War era, a new preference for Western furniture and bags came to limit, or altogether terminate, the use of *bojagi* as furniture or carrier. Especially damaging with this phenomenon was the development of plastic and the increased use of disposable articles in lieu of the *bojagi*, which contributed to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that ensued.

In this exhibition, Kyungwoon Museum undertakes to present an array of *bojagi* and bring to the audience a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ingenious employment, sound

functionality, and expressive mode with which our ancestors invested in the use and making of the *bojagi*.

***Bojagi*: The Appellation**

If the use of *bojagi* indeed originated from its sartorial function, it could be surmised that the *bojagi* first emerged with the onset of the Agricultural Age, when the production of textile became possible.

In the case of Korea, a Kaya Kingdom myth recounting the birth of King Kim Su Ro states that when (a man called) Adogan bowed in front of a golden vessel "wrapped in red cloth" and opened it, there inside was a huge egg, from which a child was born. A myth like this conveys the message that in those days *bojagi* was used to wrap objects of high value. Old documents show differing transcriptions of the word *bojagi*, using one of these Chinese characters: 袱(bok: to wrap), 複(bok: to overlap), and 襦(bo: to swaddle). The sound "bok" is equivalent to that of the character 福(bok: fortune), which demonstrates the sentiment of well-wishing fused into the word *bojagi*.

As if to adhere to the essential meaning of its name, Koreans have emphasized the "wrapping" aspect of the *bojagi* (as opposed to "tying"), and attached a string on one or more corners of the *bojagi* so that the cloth could be folded, wrapped around, and then secured in place by the string(s). As for the *bojagi* that functioned as a cover, such as the *shikbo* (cover for meal table), a string or tassel was fastened to the center in such a way that the cloth could be lifted up from this point. When it came to wrapping wedding chests and gifts, in which strings were not involved, golden paper ornaments were attach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bojagi*, and a sealing paper wrapped up the package. Decoding the character 襦(bo: to swaddle) would reveal that the radical "clothes[衣]" is incorporated into this character to signify an object that wraps or swaddles a baby.

A *bojagi* meant a lot more than its basic function of wrapping an object; it was used to protect the content, as well as to express the propriety and thoughtfulness on the part of the presenter when gifts were exchanged. Thus, it is no surprise that the *bojagi* — whether its function was mundane, ritual, or religious — developed into an impressive array of form and beauty.

Various Types of *Bojagi*

Before enlightenment, Korean society was strictly divided by social hierarchy, which makes it possible to categorize the *bojagi* into three types: *minbo*(*bojagi* for the people), *gungbo*(*bojagi* for court use), and *bulbo*(*bojagi* for religious rites). *Bojagi* used by ordinary people would be classified as the *minbo* and closely reflect their way of life, while the *gungbo* and the *bulbo* reflect the dignity and formality of the royal and religious contexts in which they were employed.

Minbo, an extension of the casual lifestyle and sensibilities of the commoners, was usually made of humble materials such as cotton or hemp, which required simple sewing techniques. Often, fabrics had to forego dyeing as pigments were extremely valuable, and when they were set to color it involved materials commonly found in nature, such as flowers, grass, and fruits. On the other hand, *gungbo*, which predominantly consisted of ceremonial and wedding *bojagi*, was produced with materials of the finest quality and magnificent color and design schemes. As for *bulbo*, notwithstanding the piety and devotion invested in them, its main function lay in preserving the content by wrapping and covering, much like the case of a common *bojagi*.

Bojagi was usually made of fabric. Before the appearance of machine-woven textiles during the enlightenment era, most fabrics were woven in the width of one or one-and-half *cha*(*cha* is approximately a foot), and it was necessary to connect these narrow fabrics — as many as ten of them — in order to achieve the width that one desired.

Bojagi has numerous names according to the method in which it was produced. *Hotbo* comes single-layered, unlined, and trimmed on the edge *gyeobo*, double-layered with lining; *sombo* is wadded with cotton; *nubibo* quilts through the *sombo* with straight or geometric stitching *subo* is embroidered with such auspicious patterns as flowers, butterflies, and bats. There are other appellations to distinguish the *bojagi*, by the name of the fabric or pattern used to create them.

***Bojagi* and the Cycle of Life**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bojagi* was an essential part of one's life, from birth to

death. In preparation for birth, the mother would make the newborn's clothing, swaddling cloth and diapers and put them away in a *bojagi* in spring and autumn, she would make a quilted wrapper and in the winter, a wadded one. The family, with a silent wish for good health, would mark the child's hundredth day by making steamed ricecake and millet dumplings filled with red bean paste — these would be assorted on a wooden tray and covered with a delicate *shikbo* before being passed around to a hundred households.

When the child — in this case a boy — becomes old enough to go to the village school, he would wrap up his books in a *chaekbo* and carry it under his arm. The school master would keep his flogging devices inside a *hoechoribo* and place it on a high place until there was a need for punishment.

While the boy is at school, his mother would prepare a meal on a small table for him, cover it with a *shikbo* and leave it on the furnace top in the kitchen she would also fill up small earthen- and wooden wares with meals for the men working in the field, deliver them in a wicker basket covered also with a *shikbo*, and set it on top of her head, which would be wrapped with a head cloth.

Marriage in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a family-to-family affair that went beyond individual celebration, and a meticulous observance of ritual propriety and rules was required for a successful wedding. Once two families have agreed on the marriage of their children, as a token of engagement, the groom's side would first send a document of the groom's horoscopic data, wrapped in red and blue *sajubo* and put inside a wooden chest that would in its turn be wrapped in a red *saju hambo*. Upon receiving this with the appropriate ritual, the bride's family would decide on a wedding date, write it up on a piece of paper that would be wrapped by red and blue *bojagi*, and finally send it to the groom's home. The wedding day is celebrated with a series of elaborate rituals that involve numerous kinds of *bojagi*.

Once the newly weds have settled down in their home, the bride would wrap her jackets and skirts separately in *otbo* and keep them inside the clothing trunks or chests in her room. Sanitary towels were wrapped and put away deep inside her trunk, covered bedding was set on top of the chest during the day, and the groom's coats, also covered in cloth, would hang on the clothing rack.

Bojagi would inevitably follow one to his or her deathbed. In illness, a *yakbo* would be used to squeeze medicine out of its ingredients; when all has been done, a white hemp cloth called

baekpo would be drawn over the face of the deceased, and for the entire body, a large blanket-like cloth.

These are just few examples of how a *bojagi* would be used in one's household, but this is not to say that the scope of its use was limited within the physical boundaries of the house. There were *bojagi* types used in communal rites, festivals, and for travel purposes; and there were more, such as ones for going to the market and sending letters, missives, and packages. In short, the functional versatility of *bojagi* defies description as it intimately penetrated all aspects of one's life, from birth to death.

***Bojagi* in the Court**

As the use of *bojagi* in court was prescribed by the lives of its inhabitants, the unique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court mandated special formality and regulations in *bojagi*-making. Materials for these *bojagi* were mainly of the silk variety, and ramie was used in place of hemp (a coarser version of the fine cloth mainly used by the commoners).

The court life evolved around a rigid structure of ranks that placed the king at the top, then the queen dowager, the queen consort, the crown prince, the crown princess, and consorts, in that order. This line of order and matching protocols dictated the specific size, color, and material that could be used for a particular member of the court, as records reveal. The garments of the royal family were generally wrapped in a special "red *bojagi*" and kept inside a red chest, a fact that validated the existence of royal colors in Korea. For insta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royal colors purple or yellow could not be freely employed even by the gentry class, let alone the commoners. As full attires for the royal family consisted of a wide range of clothing, hats, and accessories — each piece of which carried specific normative meaning — life at court would have no doubt involved an extensive use of the *bojagi*.

Religious *Bojagi*

Aside from being an everyday article, *bojagi* was also a crucial part of religious life — folk as well as formal — and presented a case of practicality fused with a sense of religious veneration.

For five hundred years of the Joseon dynasty, Confucianism served as the state ideology and philosophy, and prescribed a paradigm of social values and norms. The use of *bojagi* in the

ceremonies marking the major steps of life — such as the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memorial services — embodied the ritual propriety of the occasion dictated by this system of belief. In Buddhism, *bojagi* was a manifestation of religious devotion, and was used by the priests in all aspects of their ascetic life. *Bojagi* was also widely used in Christianity, as seasonal altar cloth, cover cloth for the Eucharist vessel and implements, and as veils for women as well.

Wrapping the *Bojagi*

A notable aspect of the Korean *bojagi* lies in the method of binding; it is similar to that of tying the ribbons of a Korean jacket and easy to undo, when compared with method of tying ends into a knot. This attribute seems to derive from a combination of two native sentiments — the popular belief of well-wishing and the urge to release old grudges, commonly identified by Koreans as *han*.

Bojagi without strings were mainly used as a cover for tables and food trays; or they were used to wrap small boxes, chests, books and other smaller items. In this case, the content would b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bojagi*, after which it would be wrapped by one end of the cloth, overlapped by two opposing ends, and finally wrapped around with the remaining end over these layers. When wrapping an item in a large-sized *bojagi*, one would pull together two opposing ends to tie a loose knot over the object or simply wrap the ends around it, and then tie the other two ends into a knot, much like one would with the ribbons of a jacket.

Bojagi can come with one or as many as four strings attached at the corner(s) of the cloth. Normally, these strings would measure longer than the length of a side, and employed in a variety of methods to secure the content. At times, as in the case of large-sized *bojagi* for blankets and large chests, the strings would serve a decorative purpose, and enhance the beauty of the finished package.

The Beauty of *Bojagi* Materials

Korean *bojagi* comes in fabrics of different texture, sheen, and pattern. Among cottons, there are broad cloth, unbleached cotton, Chinese cotton and muslin, to name just a few, and hemp and ramie are also called by numerous names, all distinguished by the thickness of the thread and the texture of the finished fabric.

Silk boasts of a huge variety, and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ju*(silk tabby), *ra*(complex gauze), *dan*(satin damask), *neung*(twill), and *sa*(gauze). *Ju* is made by the technique of plain-weaving that may or may not form texture on the surface, and *bojagi* made of these are simple and clean-cut.

Ra, made by complex gauze structure, and *Sa*, simple gauze, allow a range of transparent or colored patterns to emerge by controlling the density of the thread. *Hotbo*(single layered), the *bojagi* is transparent and light while as *gyopbo*, two attached layers of *Ra* or *sa* create a shimmering effect, and if they are of different colors, a unique color combination as well. *Dan* and *neung* come in various levels of sheen — a result of different weaving techniques — and patterns, and *bojagi* made of these benefit from the subtle beauty of the fabric.

Such variety of fabrics can be assembled together in pieces to form a *jjok bojagi*(patchwork *bojagi*), in which the colors and patterns of all the disparate pieces harmonize and contrast with each other. This particular type of *bojagi* indeed represents a unique form of Korean formative arts.

***Bojagi* Culture of Japan**

Japanese also used the *bojagi* widely in their culture and their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fukusa* and *furoshiki*. In Japan, uses of *bojagi* always had a necromantic property of covering and protecting the good and clean from the bad and polluted.

Fukusa was used casually, such as when a gift was covered or wrapped in a simplified mode. While in the beginning *fukusa* was strictly a property of the *daimyo* and wealthy merchants, by late Edo Period its usage was spread to the general populace and the farmers. This resulted in a decree of prohibitory order, since which cotton began to replace silk in the making of *fukusa*. It was during the Meiji Period that the wrapping of gifts with *fukusa* became a general practice, and with the new law that permitted commoners to adopt their own name and family insignia, *fukusa* again became widely used.

Furoshiki is a by-product of a practice that originated in the Muromachi Period. When the *daimyo* were invited to the *shogun's* residence for a bathing ritual,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belongings, each of them would wrap his clothes with a cloth engraved with his family crest. In the Edo Period *furoshiki* came to be used by merchants, who packaged their goods with cloths displaying their store insignia; this had an effect of advertising, as these store insignias came to

earn a wide recognition in the course of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major cities of Edo and Kyoto. Eventually, all cloths that functioned as a wrap or cover came to be called *furoshiki*.

Concluding Remarks

Bojagi, as we have seen, facilitates our life by its easy method of use and storage, and by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wrapping and packaging. For a long time in Korea, it was an essential object that accompanied one from birth to death. Unfortunately, due to rapid Westernization after the Korean War, mode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went through great changes, and the Korean *bojagi* culture had been meagerly sustained by the use of *bojagi* in wedding practices and the coarse, commercial *bojagi* that wraps festive goods.

Our modern life can be described as a series of events that call for commemoration and celebration, which often demands our attention to the act of gift-giving. It is here that we may revive the utility of *bojagi*, especially as it comes with the attributes — such as combination of vibrant colors and clear structural patterns — that may well meet the taste of modern users. By exploring the wisdom and artistic sensibilities that cultivated this useful article, it would be possible to reinvent, with infinite possibilities, the *bojagi* as a thoughtful and functional tool in everyday life today.





유물목록

1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58×55cm 裯, 삼베 20C

2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35×34cm 끈 62×3cm 裯, 삼베 · 모시 · 모시항라 20C

3 삼베 · 모시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of Hemp and Ramie
89×63cm 裯, 삼베 · 모시 20C

4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87×82cm 裯, 삼베 20C

5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86×86cm 끈 80×4cm 裯, 모시 · 삼베 · 무명 20C

6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114.5×122cm 裯, 모시 · 삼베 · 명주 · 면아사 20C

7 모시조각보 裯

Ramie and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96×98cm 끈 79×5cm 裯, 생모시 · 삼베 20C

8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96×97cm 끈 88×4.2cm 裯, 모시 · 항라 · 무명 20C

9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82×82cm 끈 66×4cm 63×4cm
裯, 은조사 · 생명주 · 왜사 · 항라 20C

10 면조각보 裯

Cotton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11×111cm 裯, 옥양목 20C

11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04×108cm 裯, 모시 20C

12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88×87cm 裯, 항라 · 진주사 · 노방주 20C

13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64×64cm 裯, 모시 20C

14 항라조각보 裯

Silk Gauze Patchwork Cover
59×59cm 裯, 삼죽항라 · 오죽항라 · 칠죽항라 20C

15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75×75cm 겹, 항라 · 문항라 20C

16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er
39×46cm 끈 62×3.2cm 裯, 삼베 · 옥양목 20C

17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77×77cm 끈 28×5cm 裯, 모시 20C

18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84×88cm 끈 60×4cm 裯, 삼베 · 무명 20C

19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80×80cm 裯, 모시 20C

20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61×159cm 裯, 삼베 20C

21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56×156cm 끈 54×4.2cm 裯, 모시 20C

22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05×110cm 끈 74×3.3cm 裯, 모시 20C

23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28×133cm 끈 100×3cm 裯, 모시 20C

24 모시조각보 裯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23×129cm 끈 85×3.2cm 裯, 모시 20C

25 삼베조각보 裯

Hemp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21×128cm 裯, 삼베 20C

26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67.5×64cm 겹, 무명 · 명주 · 문단 · 모시 · 문주 20C

27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74×74cm 겹, 명주 · 생명주 · 무명 20C

28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er
33.5×33.5cm 겹, 문주 · 모본단 · 소창 20C

29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68×68cm 겹, 문단 20C

30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36×36cm 겹, 명주 · 문주 20C

31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40.5×40.5cm 겹, 갑사 · 순인 · 생명주 20C

32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58×58cm 겹, 명주 20C

33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of Various Silk Gauze
67×67cm 겹, 갑사 · 진주사 · 은조사 · 항라 · 문항라 19C

34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of Various Silk Gauze
75×75cm 겹, 갑사 · 진주사 · 은조사 · 항라 · 문항라 20C

35 조각보 裯

Patchwork Wrapping Cloth
60×60cm 겹, 자미사 · 명주 · 문주 20C

36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56.5×66cm 겹, 명주 · 문주 · 삼팔주 20C

37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56.5×56.5cm 겹, 속고사 · 주 20C

38 오색고전문상보 裯

Five-colored Table Cover with Geometric Window Frame Pattern
49×49cm 겹, 갑사 · 순인 · 항라 · 문단 · 생명주 20C

39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82×82cm 겹, 명주 20C

40 조각보 裯

Patchwork Cover
80×102.5cm 겹, 명주 20C

41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8×85cm 끈 79×4cm 겹, 명주·문주·문단·무명 20C

42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of Various Silk Gauze
67×67cm 겹, 갑사·진주사·은조사·항라·문항라 19C

43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95×95cm 겹, 명주 20C

44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88×88cm 겹, 명주 20C

45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er
37.5×37.5cm 끈 51×1.6cm
겹, 숙고사·진주사·순인·명주·은조사·문주 20C

46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60×60cm 겹, 명주·문주 20C

47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48.5×48.5cm 겹, 갑사·순인·생고사·문은조사·생명주 20C

48 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78.5×90cm 홑, 갑사·순인·생고사·문은조사·은조사 20C

49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of Silk Gauze
49×49cm 겹, 항라 20C

50 혼례용청홍조각보 褙

Blue and Red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Wedding
67×76cm 겹, 숙고사·국사 20C

51 자수보 刺繡褙

Embroidered Wrapper
34×34cm 끈 52.5×5cm 면, 명주 20C

52 자수패물보 刺繡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for Wedding
29.5×29.5cm 끈 51×4cm 겹, 문단 20C

53 혼례용패물보 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with Decorated Ties for Wedding Jewelry
34.5×34.5cm 끈 42.5×5cm, 50×5cm 겹, 명주·문단 20C

54 화조문자수보 刺繡褙

Wrapping Cloth for Wedding with Embroidered Pattern of Flowers and Birds
39×39cm 끈 40×4.5cm, 고리 14×1.5cm
겹, 명주·문주·광목 20C

55 혼례용패물보 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for Wedding Jewelry
39×39cm 끈 31.5×4.5cm, 51×4.5cm
겹, 국사·숙고사·문주 20C

56 혼례용 화목문보 花木紋褙

Wrapper for Wedding with Embroidered Pattern of Flowers and Trees
41.5×41.5cm, 끈 52.5×3cm 겹, 옥양목·소창 20C

57 자수보 刺繡褙

Embroidered Wrapper
43×43cm, 끈 43×3cm 겹, 옥양목 20C

58 혼례용 화목문자수보 刺繡褙

Wrapper for Wedding Jewelry with Embroidered Pattern of Flowers and Trees
39×39cm, 끈 32×2cm 겹, 옥양목 20C

59 수보 繡褙

Part of Embroidered Wrapping Cloth
30×32cm 겹, 공단·면메리야스 20C

60 관보(이불보) 唐彩花紋褙

Wrapping Cloth Stamped and Painted with Traditional Chinese Pigment Used in the Palace
182×202cm, 끈 121×15cm 홑, 당목 19C

61 관보(이불보) 板褙

Stamped Wrapping Cloth Used in the Palace
177×177cm 끈 80×6cm, 86×6cm 홑, 광목 20C

62 혼례용관보 板褙

Stamped Wrapping Cloth for Wedding Used in the Palace
177×177cm 끈 (194+66)×13cm, 60×3cm 홑, 무명 20C

63 방장 房帳

Appliqued Door Curtain with Chinese Character and Bat Design Used in the Palace
230×141.5cm 겹, 매화문단·무문단·나무·쇠 20C

64 방장 房帳

Appliqued Door Curtain with Chinese Character and Bat Design Used in the Palace
200×148cm 겹, 면두독직·나무·쇠 20C

65 바리보(남자용) 褙

Wrapper for Men's Rice-bowl
33×32cm 끈 53×3cm 홑, 무명 20C

66 바리보(여자용) 褙

Wrapper for Women's Rice-bowl
29.5×29.5cm 끈 64×5cm 겹, 명주·무명 20C

67 주발보 褙

Rice-bowl Cover Quilted with Cotton Batting
15×14cm 겹, 솜, 문단·모본단·생고사·명주 20C

68 주발보 褙

Rice-bowl Cover Quilted with Cotton Batting
15×14cm 겹, 솜, 문단·모본단·생고사·명주 20C

69 주발보 褙

Rice-bowl Covering Padded with Cotton Batting
15×16cm 겹, 솜, 모본단·생고사·명주 20C

70 매화문 삼각바리보 褙

Women's Rice-bowl Wrapper with Embroidered Pattern of Plum Blossom
24.5×33cm 끈 29×1.5cm 겹, 명주·문주 20C

71 소반 조각상보 褙

Patchwork Food Cover
49.5×53cm 겹, 명주·모본단 20C

72 자수조각덮개 褙

Patchwork Cover with Embroidery and Small Tassels at the Four Corner
39.5×53cm 겹, 모본단·문주 20C

73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8×68cm 홑, 진주사·갑사·숙고사 20C

74 상보 褙

Silk Gauze Patchwork Food Cover
46×44cm 겹, 갑사·문은조사·진주사 20C

75 조각상보 褙

Patchwork Food Cover
57×64cm 겹, 갑사·순인·생고사·문은조사·생명주 20C

76 누비보 褙

Quilted Food Cover
31×31cm 겹, 문주 20C

77 누비보 褙

Quilted Food Cover
48×62cm 겹, 명주·솜 20C

78 누비보 褙

Quilted Food Cover
48×62cm 겹, 명주·솜 20C

79 삼베조각보 褙

Hemp Patchwork Food Cover
107×110cm 홑, 삼베 20C

80 자수식지보 褙

Embroidered Food Trays Cover Trimmed with Paper
30×40cm 겹, 명주·종이 20C

81 자수식지보 褙

Embroidered Food Trays Cover Lined with Paper
30.5×44cm 겹, 노방·명주·종이 20C

82 자수식지보 褙

Embroidered Silk Cover Trimmed with Paper
31×25cm 겹, 모본단·문주·옥양목·종이 19C

83 자수식지보 褙

Embroidered Food Tray Cover Trimmed with Paper
34×26.5cm 겹, 면아사·종이 20C

84 모시덮개 褙

Ramie Cover
64×85cm 겹, 모시 20C

85 원용문상보 褙

Food Cover with Round Dragon Design
45×61.5cm 겹, 모본단·화문양단·나일론망사(합성섬유) 20C

86 화문수조각보 褙

Patchwork Cover with Flower Embroidery
35.5×35.5cm 겹, 모본단 20C

87 약탕관·약수건 褙

Draining Cloth for Herb Medicine
36×41cm 홑, 삼베 20C

88 이불보 褙

Wrapping Cloth for Bedding
207×207cm 끈 142×11.5cm 홑, 모시 20C

89 강보·누비포대기 褙

Quilted Wrapper for Baby
강보 109×105cm, 누비포대기 107×108cm 겹, 무명·명주 20C

90 서답보 褙

Patched Wrapper for Sanitary Towels
분홍:49.5×48.5cm 끈길이70cm, 끈너비3cm
홍색:62×61cm 끈길이82cm, 끈너비4.3cm
겹, 화문단·문주·문인조·공단 20C

91 빨래보 褙

Wrapping Cloth for Laundry
147×148cm 홑, 무명 20C

92 버선본보 襪本褙

Case for Storing Socks Pattern
12×9.5cm 겹, 모직·명주 20C

93 버선보 褙

Wrapping Cloth for Socks
92×57cm 홑, 옥양목 20C

94 모시조각보 褙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84×85cm, 끈 78×5cm 홑, 모시 20C

95 모시조각보 褙

Ramie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Storing Clothes
104×113cm, 끈 69×5cm 홑, 모시·무명 20C

96 조각보 褙

Patchwork Wrapping Cloth
65.5×65.5cm, 끈 68×3.5cm
겹, 순인·갑사·속고사·생고사·명주·항라·은조사 20C

97 화조문수덮개 褙

Embroidered Cover
46×46cm 홑, 광목 20C

98 자수헛대보 衣桁褙

Embroidered Cloth for Hanger
117.5×165cm 홑, 옥양목 20C

99 자수경대보 鏡臺褙

Embroidered Cover for a Mirror Stand
78×41cm 겹, 공단 20C

100 모시가리개 褙

Ramie Patchwork Drapery
186×45cm 홑, 모시 20C

101 원산 머리수건 褙

Women's Headdress used in Wonsan
90×90cm 홑, 무명 20C

102 평안도 머리수건 褙

Women's Cotton Headdress used in Pyeongan-do Area
90×90cm 홑, 무명 20C

103 함경도 머리수건 褙

Women's Headdress used in Hamkyung-do Area
45×100cm 홑, 무명 20C

104 누비머리보 褙

Women's Quilted Headdress used in Gaeseong area
90×90cm 겹, 명주·솜 20C

105 책보 冊褙

Wrapping Cloth for Carrying Books
110×110cm 홑, 무명 20C

106 회초리보 褙

Wrapping Cloth for Storing Flogging Divices
90×90cm 홑, 무명 20C

107 한지책보 褙

Korean Paper Wrapper for Storing Books or Documents
73×92cm 겹, 종이 20C

108 괴나리 붓짐 褙

Traveler's Knapsack and Straw Sandals
홑, 생모시·무명

109 사주함보 四柱函褙

Decorated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Chest
106×110cm, 띠 62×93cm 겹, 진주사 20C

110 함보 函褙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Chest
161×164cm 겹, 도류불수사 20C

111 혼서지보 婚書紙褙

Wrapping Cloth for Marriage Letter to Bride's Family
from the Groom's
60×60cm 홑, 명주 20C

112 기러기보 褙

Embroidered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Goose
39×39cm, 끈 40×4.5cm, 고리 14×1.5cm
겹, 명주·문주·광목 20C

113 패물보 珮物褙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Jewelry from In-law Family
76×76cm, 끈 85×5cm 겹, 공단 20C

114 폐백보 幣帛褙

Gold Sticking Wrapping Cloth for Wedding Foods to In-law Parents
161×164cm 겹, 도류불수사 20C

115 삼베화문자수보 刺繡褙
Hemp Embroidered Wrapping Cloth
38×38cm, 끈 44×4cm 겹, 삼베·명주 20C

116 명주보 褙
Silk Tabby Wrapping Cloth
76×76cm 겹, 명주 20C

117 사주보 四柱褙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Document of Groom's Horoscopic Date
67.5×67.5cm 겹, 화문단 20C

118 혼례보 婚禮褙
Wrapping Cloth for Wedding
55×55cm 홑, 합성섬유 20C

119 패물보 珮物褙
Wrapper for Wedding Jewelry with Decorative Ties
and Embroidery at One Corner
40×40cm, 끈 28×5cm, 55×5cm 겹, 모본단·명주 20C

120 패물보 珮物褙
Embroidered Wrapper for Wedding Jewelry
39×39cm, 끈 31×4cm, 45×4cm 겹, 명주·문주·문단 20C

121 패물보 珮物褙
Wrapping Cloth for the Wedding Jewelry with Four Ties
of Birth and Time of Bridegroom
41×41cm, 끈 44.5×4.5cm 겹, 국사·숙고사·문주 19C

122 패물보 珮物褙
Wrapping Cloth for Wedding Jewelry with Decorative Patchwork
and Small Tassels on the Tie
36.5×36.5cm, 끈 33×5.7cm, 60×5.7cm 겹, 모본단·인조견 20C

123 함보 函褙
Gold Sticking Wrapping Cloth for Wedding Chest
161×164cm 겹, 도류불수사 20C

124 혼례보 婚禮褙
Wrapping Cloth for Wedding
72×72cm 겹, 공단 20C
72×72cm 홑 20C
76×76cm 겹, 숙고사 20C

125 족두리보 褙
Ceremonial Coronet for Women & Wrapper
80×102.5cm 겹, 명주 20C

126 명주족두리보 褙
Silk Tabby Wrapping Cloth for Women's Coronet
53×53cm, 끈 92×3.3cm 겹, 명주 20C

127 면사보 面紗褙
Ceremonial Veil used by the Royal Family
140×218cm 홑, 은조사 19C(재현)

128 명정 銘旌
Covering Cloth for the Coffin
172×64cm 홑, 견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29 이불
Inner Shroud Wrapping the Corps
216×208cm 겹, 면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30 이불
Outer Shroud Wrapping the Corps
277×199cm 겹, 견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31 떡목 幪目
Wrapping Cloth for the Dead's Face
24×24cm 겹, 견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32 악수 幄手
Wrapping Cloth for the Dead's Hands
전체길이 121cm, 24×11.5cm 겹, 견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33 조발낭 爪髮囊
Pouch for the Dead's Hair
9.5×7.8cm 겹, 견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34 오낭 五囊
Pouch for the Dead's Nails and Hair
5.3×5.4cm, 5.1×5.8cm, 5.3×5.7cm 겹, 견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135 후령통보 喉領筒褙
Wrapping Cloth for Huryeongtong
9.5×6.5cm 홑, 조선시대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36 황초폭자 黃綃幅子
Wrapping Cloth for Huryeongtong
35×35cm 홑, 초 1639년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37 황초폭자 黃綃幅子
Wrapping Cloth for Huryeongtong
18.9×17.6cm 홑, 초 1726년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38 청색주사리보 靑色紬舍利褙
Wrapping Cloth for Relic(Sarira) of a Buddhist Priest
28.2×25.5cm 홑, 주 1639년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39 녹색주오곡보 綠色紬五穀褙
Wrapping Cloth for five kinds of Crops
31.5×30.8cm 홑, 주 1639년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40 가사 袈裟
Kasaya Left by Priest Ilyeop
201×86.7cm 겹, 숙고사 20C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41 바루보 褙
Bowl Wrapping Cloth Left by Priest Ilyeop
30×162cm 겹, 면 20C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42 수저집 褙
Pouch for Storing Spoon and Chopsticks
8.3×42.5cm 겹, 면 20C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43 바루 수건 手巾
Bowl Wiping Cloth
33.5×39cm 겹, 면 20C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144 개두포 蓋頭布
Amice
61×80cm, 끈 113×1.5cm 홑, 아마 20C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145 어깨보 褙
Humeral Veil
43×247cm 겹, 합섬 20C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146 성작보 聖爵褙
Chalice Veil
53×52cm 겹, 명주 20C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147 성체포 聖體布
Corporal
46×45cm 홑, 아마 20C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148 성작개 聖爵蓋
Pall
18×18cm 겹, 무명 20C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149 성체포낭 聖體布囊
Burse
20×20cm 겹, 합섬 20C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150 제대포 祭臺布
Altar Cloths
24.6×96.5cm 홑, 면 20C 영원한도움의성모 수녀회

151 주수수건 酒水手巾
Purificatorium
39×26cm 홑, 아마 20C 영원한도움의성모 수녀회

152 미사포 彌撒布
Veil for Mass
60×83cm 홑, 인조견 19C 영원한도움의성모 수녀회

유물 대여

김중학

허동화

국립민속박물관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

성빈센트수도회 자비의수녀원

영원한도움의성모 수녀회

김종용프란치스코 신부님

임히주

김순희

모수미

한순자

구본일

안인실

귀중한 유물을 대여해 주시고
이번 전시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